

Building on Principles

MIRAE ASSET Securities Annual Report 2006

Contents

INTRODUCTION

- | 02 |. 사장님 인사말
- | 04 |. 주요 재무정보
- | 05 |. 추가정보
- | 06 |. 주요 사업소개
- | 08 |. 2006 주요성과 및 수상
- | 10 |. 리스크관리
- | 11 |. 리스크심사
- | 12 |. 준법감시
- | 13 |. 내부통제
- | 14 |. 경영이념
- | 15 |. 그룹시너지

REVIEW OF BUSINESS OPERATIONS

종합자산운용컨설팅

- | 17 |. 금융상품
- | 18 |. 법인상품영업
- | 19 |. 해외투자상품 및 PEF
- | 20 |. 신탁상품
- | 21 |. 랩상품
- | 22 |. 방카슈랑스
- | 23 |. 자산운용컨설팅

위탁사업

- | 24 |. 온라인사업
- | 25 |. 영업추진
- | 27 |. 법인위탁영업
- | 28 |. 리서치센터

투자은행업무

- | 30 |. IPO업무
- | 31 |. IB상품
- | 32 |. 장외파생상품
- | 33 |. 구조화금융
- | 34 |. 부동산금융
- | 35 |. SOC사업
- | 36 |. 프로젝트개발

- | 37 |. M&A 업무
- | 38 |. 채권영업
- | 39 |. 자산운용본부

퇴직연금

- | 40 |. 국내퇴직연금 시장규모
- | 43 |. 퇴직연금 마케팅
- | 44 |. 인재개발
- | 46 |. 사회공헌

FINANCIAL SECTION

재무제표

- | 49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 50 |. 대차대조표
- | 53 |. 손익계산서
- | 5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56 |. 현금흐름표

기타

- | 59 |. 조직도
- | 60 |. 해외네트워크
- | 61 |. 회사연혁

Profile

미래에셋증권은 “Back to the basics”라는 투자철학을 모토로 1999년 설립 이래 Asset Management, Investment Banking, Brokerage, Corporate Pension 등 투자자 산관리 영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고객중심의 초우량 종합자산 관리회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중심의 독립된 투자전문금융그룹으로서 경영의 투명성, 일관성,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상품을 설계하여 안정된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선진국형 종합자산운용건설팅회사입니다. 또한 국내최초의 뮤추얼펀드 판매를 시작으로 국내최초 부동산펀드출시, 해외투자펀드출시 등 “First-See, First-In”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자본시장의 Innovator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운용 부문에서의 뛰어난 브랜드 파워 및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이며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통해 높은 고객 충성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다양한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 영업 및 Investment Banking 부문의 강력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Investment Banking 업무 추진 등 기업금융 영역의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시작으로, IB 업무 강화를 통한 대형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2007년 3월말 현재 총 자산 규모는 3조 9,190억원, 자기자본은 9,564억원이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3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 945.6%로 건전하고 우량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유가증권 개념확대, 신탁업 및 퇴직연금사업 등 혁신적이고 새로운 금융환경변화를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재양성과 선도적인 금융상품 개발, 자본확충을 통한 Principal IB기능 강화 및 Globalization 추진, 사회책임경영(CSR)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증권사로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 사장님 인사말 |

CEO's Message





“고객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상품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대한민국 가장 신뢰 받는 금융사의 위상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목받는 세계적 투자회사로 도약합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주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당사는 대형 투자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지난 사업년도에 주식약정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7.1%를 기록하였고, 자산관리형 금융상품잔고는 18조 7천억원에 이르렀으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 과당사 고유의 총 운용자산 규모는 29조원에 달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과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신탁업, 장외파생상품, 퇴직연금, CMA 업무 등 신규사업 진출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점망 확장을 통하여 고객 기반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의 선도적 개척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월에는 홍콩 현지법인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세계적 투자회사를 향한 우리의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IB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IPO상”을 수상하는 등 질적인 향상을 이룩하였으며, 학교BTL특별자산펀드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동산금융상품과 구조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당사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 1,1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이에 더불어 “2006년 대한민국 가장 신뢰 받는 기업상”과 “대한민국 펀드마케팅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주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으며, 내년에는 보다 우수한 경영성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에셋증권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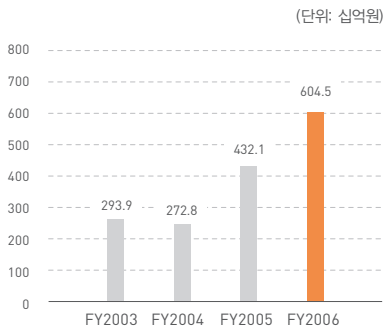
Hyeon Man Choi
| President & CEO |
May 25, 2007

Financial High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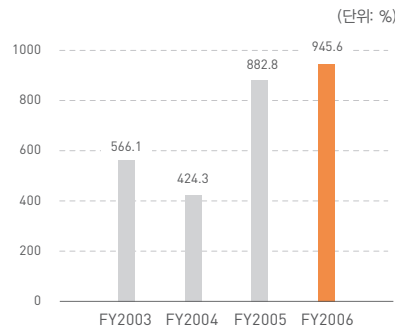
	백만달러	십억원			
	FY2006(US\$)	FY2006	FY2005	FY2004	FY2003
영업실적					
영업수익	642.9	604.5	432.1	272.8	293.9
영업비용	474.7	446.4	294.6	220.4	229.9
영업이익	168.1	158.1	137.5	52.5	64.0
판매비와관리비	183.6	172.6	148.4	99.2	101.7
경상이익	170.5	160.3	128.3	46.6	63.3
당기순이익	123.0	115.7	91.5	31.3	43.7
재무현황					
자산총계	4,167.9	3,919.1	1,509.7	824.3	705.0
부채총계	3,150.8	2,962.7	979.4	578.7	481.3
자본총계	1,017.1	956.4	530.2	245.5	223.7
주요재무지표(%)					
영업용순자본비율		945.6%	882.8	424.3	566.1
총자산순이익률		4.26%	7.84	4.09	6.37
자기자본순이익률		15.56%	23.60	13.32	21.25

* 미국 달러화 표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원화계정을 2007년 3월 31일 기준환율인 달러당 940.30원으로 환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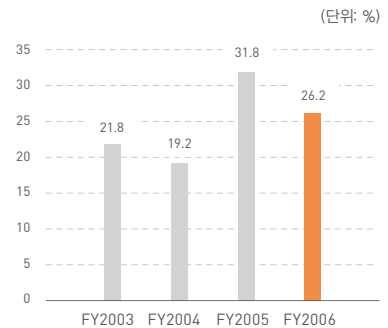
영업수익



영업용 순자본비율



영업이익률



| 주 가 정 보 |

Share Information

I.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투자지분 현황

(2007년 3월 31일 기준, 출처: 사업보고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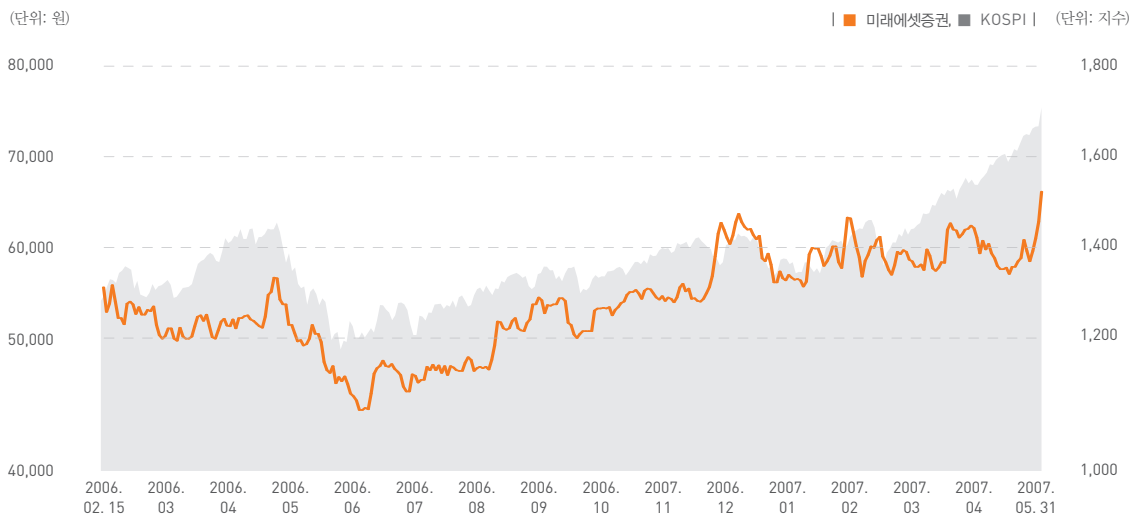
투자회사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캐피탈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 맵스자산운용
피투자회사				
미래에셋증권	-	39.74	-	-
미래에셋자산운용	-	-	-	-
미래에셋벤처투자	74.09	-	-	-
미래에셋캐피탈	-	-	-	-
Mirae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Ltd.	-	-	-	100.00
Mirae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Asia) Pte. Ltd.	-	-	100.00	-
MiraeAsset Hong Kong Limited	100.00	-	-	-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	-	10.06	-
미래에셋생명	-	59.67	-	2.86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이 출자한 런던법인과 인도법인은 현재 현지금융당국의 license 취득절차를 진행중이며, 동 절차 완료 후 현지법인 금융 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II. 배당정보

	FY2006	FY2005	FY2004
주당순이익(원)	3,649	3,403	1,386
배당금총액(백만원)	18,554	26,950	7,896
배당성향	16.0%	29.4%	25.3%
배당수익률	0.8%	1.7%	-
주당배당금(원)	500	1,000	350

III. 미래에셋증권 주가추이 vs 코스피지수



Business at a Glance



| 종합자산운용컨설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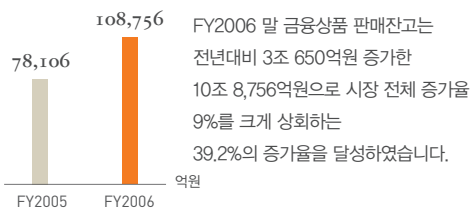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은 주식, 수익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영역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견조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효과적인 투자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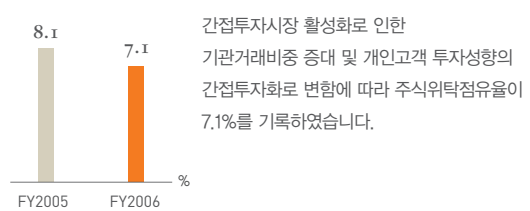
| 위탁사업 |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위탁시장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법인설립을 통한 해외주식 중개부문의 역량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9.2%



7.1%





| 투자은행업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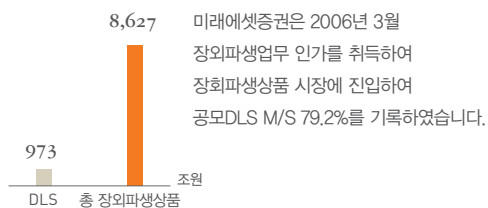
증권사의 대형화 추세와 함께 증개업무 위주에서 투자개념으로 금융시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전략적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존 전통적인 IB업무와 컨설팅업무, Principal Investment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증권시장의 확대에 당사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한 해외투자자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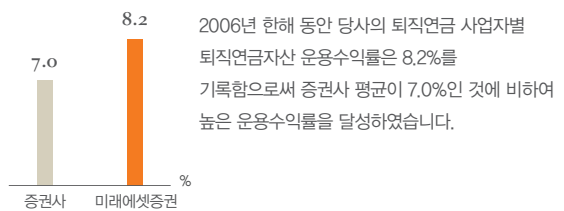
| 퇴직연금 |

미래에셋증권은 타업권에 비해 불리한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초기 퇴직연금시장에서 동종업계 대비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자산에 대한 자산관리 및 배분시장에서 당사의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미래에셋증권은 가입자 대상 퇴직연금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상품경쟁력확보를 통한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79.2%



8.2%



2006 Highlights & Awards



01. 유가증권시장 상장 _06.02.15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은행 및 자산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Investment Banking 업무추진을 위한 Underwriting 능력 강화, 고유자금 활용을 통한 Proprietary Investment 확대, M&A 등 기업금융 영역의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자산운용 확대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업점 확대, 전산투자, 운용자금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02. 머니투데이 IB대상 _06.04.28

최우수 코스닥 IPO 부문에 우리이티아이의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미래에셋증권은 머니투데이에서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IB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004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IB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한 실적을 올린 증권사, 기업 등을 선정, 시상해 왔습니다.



03. 퇴직연금상담센터 오픈 _06.07.14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상담센터'를 퇴직연금본부내에 개설했습니다. 퇴직연금상담센터는 일정 기간 동안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마치고 실무경험과 상담능력을 인정 받은 컨설턴트로 구성됐습니다. 퇴직연금상담센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의와 요청사항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응대하며, 기업의 실무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4. 미래에셋 자산관리 CMA 출시 _06.10.06

CMA는 증권사의 투자서비스와 은행의 금융서비스가 결합된 증권사 계좌로 계좌 내의 현금을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해 은행 보통예금보다 현격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현금관리 기능이 포함된 1석 3조의 상품입니다. '미래에셋 자산관리 CMA'는 365일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बैं킹서비스와 더불어 CMA에서 직접 펀드가입 및 주식거래가 가능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처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유희자금을 RP에 안정적으로 투자, 최고 연 4.4%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05. 한국CEO그랑프리 '증권부문' 수상 _06.12.12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사장이 제2회 한국CEO그랑프리에서 '증권부문' 을 수상하였습니다. 제2회를 맞는 한국CEO그랑프리는 한국CEO연구포럼과 머니투데이가 함께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연구 제휴하여 제정한 상으로 올해에는 업종별 11개 부문과 특별상 5개 부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동원증권 지점장을 거쳐 1997년 박현주 회장을 도와 미래에셋의 창업 동지로 참여했으며, 미래에셋 자산운용 대표를 거쳐 미래에셋증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06. 대한민국 가장 신뢰 받는 기업상 수상 _06.12.19

미래에셋증권은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신문이 공동 후원한 2006년 '대한민국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인·가장 신뢰 받는 기업'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가장 신뢰 받는 기업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윤리에 입각한 정도경영 등 바람직한 기업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제정된 이 상은 1500여 기업을 1차 평가하고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저명한 심사위원회 8명의 최종심의를라는 엄정한 심사로 선정되었습니다.



07. 미래에셋증권홍콩 법인 영업인가 _07.01.11

미래에셋증권의 홍콩 현지 사무소가 유가증권 거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경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은 법인과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로커리지영업은 물론 PB사업, 인수와 유상증자, 인수합병, 부동산투자 등 투자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향후 PB와 IB 등을 영위하는 종합증권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08. 유·무상증자 주권의 납입 _07.03.14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사업과 IB업무를 강화하여 대형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홍콩,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 신흥시장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성장성이 높은 해외 사무투자펀드에 투자하는 등 해외사업 강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지분투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BW), 국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투자, 자산유동화증권 (ABS) 인수, M&A 등 IB 사업 전 분야에 걸쳐 투자될 예정입니다. 증자자금은 영업채널 확대, IT 전산개발투자, 홍보 등 운용자금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Risk Management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의 영속성 및 고객보호라는 두 가지 리스크관리 철학을 토대로 리스크관리 정책 및 Framework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영역에 수반되는 모든 리스크는 업무별, 요인별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 인식되고, 합리적으로 측정되며,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리스크관리팀에서는 각 건마다 사전적으로 리스크 검토를 수행하며, 승인된 거래는 사후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측정되고 관리됩니다.

모든 리스크는 조직별, 목적별, Risk Factor별로 측정되어 미래에셋증권의 통합 리스크가 산출됩니다. 측정방법론으로는 Value at Risk, Credit Exposure, Stress Test, Scenario Analysis, Greeks, Operational Key Risk Indicator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측정모델 및 가정들은 주기적으로 재검토되어 리스크 측정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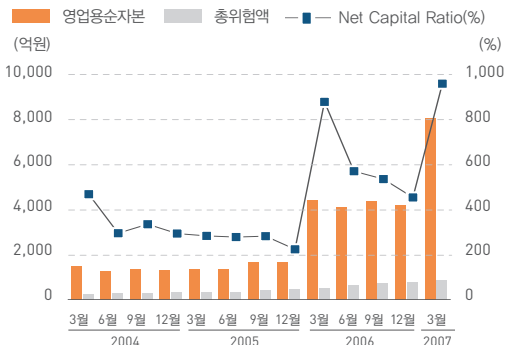
매일 측정된 리스크는 종류별한도 및 기간별한도로 관리됩니다. Position Limit, 손실한도, VaR Limit, Loss Cut, Stress Test Limit, Greeks Limit, Liquidity Gap, Liquidity Ratio, 등급별/업체별/그룹별 Credit Exposure Limit 등의 리스크 한도가 승인되어 Control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측정값들은 일별 및 월별 주기로 정기적으로 보고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06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직, 인력, 시스템 영역에 대한 리스크 관리능력을 실사 받았으며, 그 결과 2006년 3월 장외파생 금융상품 경영 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Credit VaR 및 Operational Risk에 대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회사의 성장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국내 증권사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총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2006년 2월 IPO를 통한 1,952억원의 자금유입으로 영업용순자본이 대폭 증가하여 NCR 88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PI 및 IB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과잉 유동성이 축소되어 NCR은 FY2006 3분기에 554.5%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 3월 3,375억 원의 유상증자로 NCR은 945.6%로 상승하였습니다.

총위험액 중 시장위험액의 변동은 주로 간접투자자산의 증가로 인한 수익증권위험액과 채권포지션(RP포함) 증가로 인한 금리위험액의 증가에 기인하며, FY2006 말 각각 177억원과 80억원입니다. 거래상대방위험액은 RP거래의 증가와 OTC신용위험 증가로 변동되었습니다. 총위험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위험액은 일반관리비(급여 등)로부터 산출되며, 당사의 사업확대와 비례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단위: 백만원)			
	FY2006	FY2005	FY2004	FY2003
시장위험액	33,267	11,000	7,164	3,797
거래상대방위험액	16,806	7,817	4,058	3,139
기초위험액	35,000	31,225	20,844	19,026
신용집중위험액	-	-	-	76
위험조정	-	-	-	-
총위험액	85,073	50,042	32,066	26,038

| 리 스 크 심 사 |

Risk Analysis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업무와 IB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심사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하기 위해 2006년 10월에 리스크심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리스크심사팀은 IPO, 유상증자, 회사채인수, Structured Finance, 부동산펀드, SOC, M&A 등의 IB관련 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로 Deal의 구조분석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해 Financial Risk와 Legal Risk, Reputation Risk 등을 심사합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신용거래가능종목 리스트를 관리하고 채권 중개 및 신탁자산 편입 가능한 채권 종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개인고객의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보좌하여 위원회 일정관리 및 안건 검토자료 작성, 회의록 관리 등의 제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약 98건의 IB 업무 심사가 있었고, 위탁증거금 면제대상 심사 30건, 4회의 현금증거금 및 담보대출종목 재산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탁업, 퇴직연금 등 신규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기존의 리스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리스크관리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07년 3월말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1회, 인수소위원회 9회, 금융상품소위원회 15회, 신탁업소위원회 2회가 개최되었는데, 2005년 이후 리스크 관리위원회에 부의되는 IB 관련 심사건수가 점차 증가되어 2006년에는 그 비중이 50%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IB 업무가 당사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007년에도 자본확충 및 글로벌 비즈니스가 확대됨에 따라 PI를 포함한 IB업무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정교한 심사, 분석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더욱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업무 단위별 심사기법의 전문화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기심사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육성 및 보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Compliance

미래에셋증권은 철저한 내부통제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자보호, 윤리경영, 공정거래질서유지, 법규준수 등을 다하기 위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전담조직으로 컴플라이언스팀을 두고 증권거래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2000년)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법규준수 여부에 대해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 법규준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을 혐의거래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불법자금의 당사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창구에서 발생하는 입출금 및 증권거래내역에 대해 영업점 및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점 보고사항 및 컴플라이언스팀 자체 모니터링 내역에 대해 준법감시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자금세탁혐의거래보고(STR, CT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임직원이 체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부점별로 준법감시업무를 위임받은 준법감시담당자를 1인씩 두고, 준법감시담당자는 부점별 내부통제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매월 보고하고, 보고된 사항은 컴플라이언스팀이 재확인하여 특이사항은 세부점검 및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규정은 신규업무 및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사항 발생시 적시 반영하여 제·개정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통합자금세탁방지모니터링시스템, 임직원 자기매매점검시스템, 민원처리전산시스템 등을 보완·구축하고, 법규준수 메뉴얼을 발간하여 모든 부점에 배포하는 등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사전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준법감시체제를 보완·개선함으로써 고객,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회사, 금융사고 없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내부 통제 |

Internal Control

미래에셋증권의 감사업무는 회사 내부의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에 대한 관리의 신뢰성, 적정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며, 조직 내의 모든 활동이 관련 법규나 내부지침을 준수하고 경영정책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이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및 영업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테마·기획 및 사고조사 등에 의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 업무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일상 감사 외에 상시로 감사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모니터링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 시스템은 현장감사와 상시 모니터링의 연계(Feed-Back) 강화를 위해 감사1팀과 감사2팀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1팀은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기하여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내부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며, 현장감사를 위주로 본사 및 지점에 대해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결과 사고개연성이 있는 계좌나 지적 계좌에 대해서는 감사2팀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감사2팀은 유가증권 매매거래, 현금출납 등 영업 및 업무부문에 대한 적정성을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 내부 직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금융관련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계좌 및 영업(업무)행위에 대해서는 감사1팀에 통보하여 현장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으로도 감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사로 감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한편,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준법교육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인별 전문분야를 특화하여 신규제도 및 업무 그리고 신상품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orporate Philosophy

경영이념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

열린 마음으로 보다 높이 보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고객을 위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인재를 성장시키는 것이 기업을 발전시키며 건강한 사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미래에셋의 경영이념입니다.

핵심가치

미래에셋은 고객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직은 미래에셋 최고의 자산이며, 고객에게는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고객중심주의’ 신념은, 고객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이어집니다. 신뢰를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 아래, 고객의 이익이 곧 회사의 이익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고객의 이익극대화 창출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에셋은 고객의 입장에서 서서, 고객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투자전문그룹으로서 독립성과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은 증권, 생명보험, 자산운용, 캐피탈, 벤처투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그룹으로서, ‘Back to the Basic’을 투자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이 최고의 Partner’라는 고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통해, 자본시장에 모든 역량을 전력 투구하여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투자 전문기업을 추구합니다. 또한, 각 계열사들의 독립구성을 통한 자산가치와 전문 Financial Group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경쟁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미래에셋 각 개인은 존중 받아야 하며 Team Play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에셋의 경쟁력 있고 우수한 인재들은 인재양성 제도의 기회를 통해, 차별 없는 기회와 능력위주의 발탁 승진으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으며, ‘개인의 발전=조직의 성장’이란 이념을 바탕으로, 팀 단위 명확한 Role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경영진의 진정성과 직원의 믿음으로 상호간 100% 신뢰와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존중과 Team Play에 대한 믿음을 통해 변화에 앞서갈 것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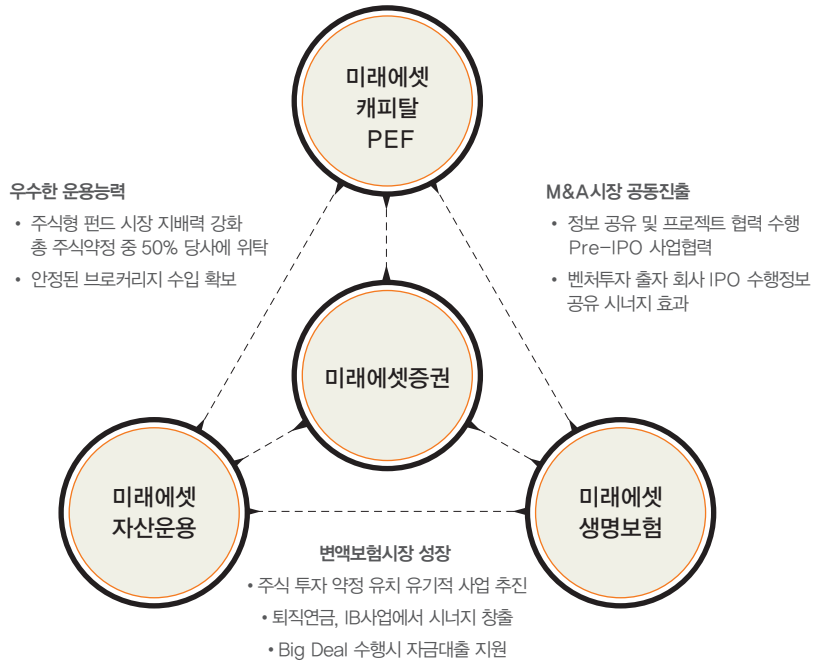
미래에셋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미래에셋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 그룹 시너지 |

Synergy with Group

그룹 구조_시너지 창출



미래에셋증권과 그룹 내 계열사들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구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우수한 투자상품 운용능력으로 브랜드파워를 인정받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운용 자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펀드판매채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수익증권판매 수수료와 위탁수수료의 동반 상승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생명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품 line up에 추가함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의 변액상품에서 발생하는 주식중개수수료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상품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향후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며 미래에셋생명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또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B 비즈니스 관점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Review of Business Ope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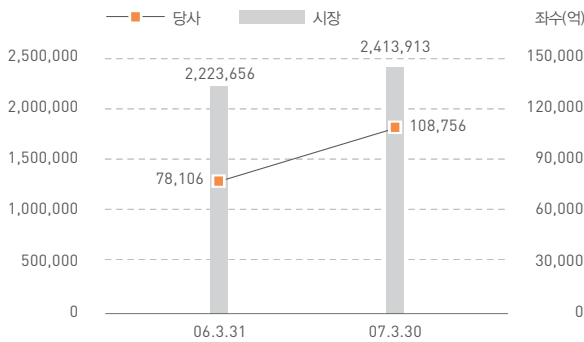
| 종합 자산 운용 컨설팅 |

Asset Management

Fund Products_금융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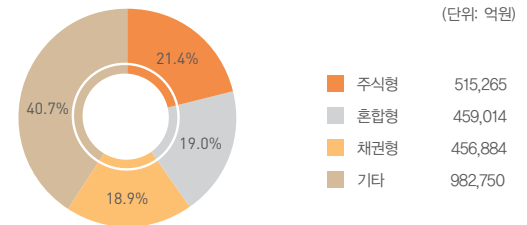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은 '종합자산컨설팅회사' 라는 고객지향적인 선진화된 모델을 제시하며 업계 자산관리부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를 통해 장기투자 및 간접투자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자본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글로벌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펀드와 인프라펀드, 해외실물 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효과적인 투자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수탁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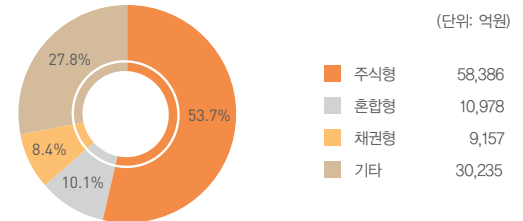


FY2006 말 금융상품 판매잔고는 전년대비 3조 650억원 증가한 10조 8,756억원으로 시장전체 증가율 9% 대비 39%의 증가율을 달성하였으며, 자산관리 역량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주식형펀드의 판매잔고는 5조 5,386억원으로 증권업계 비중의 27%를 점유, 압도적 1위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또한 간접투자 활성화의 중심에 있는 적립식펀드의 판매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계좌수는 11만 계좌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56% 증가한 31만 계좌를 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창출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상품 시장 현황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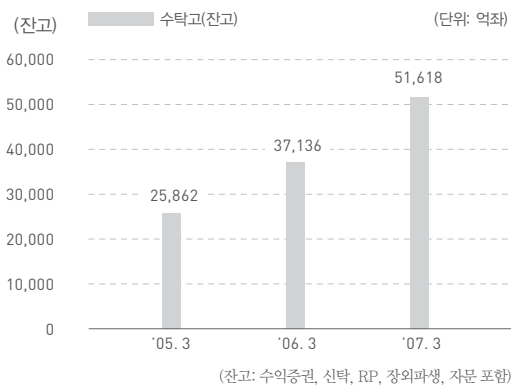
2007년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저축에서 투자로의 금융패러다임 변화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와 업무범위 확대와 같은 새로운 제도에 맞춰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하고, 채널 확대 및 글로벌 투자펀드 라인업 구축,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선진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겠습니다.

Asset Management

Institutional Sales_법인상품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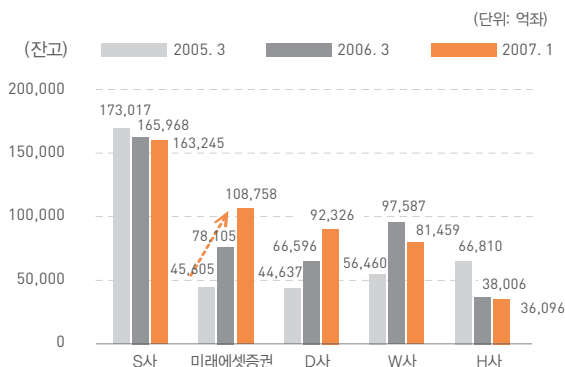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은 법인고객을 위한 종합자산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적 Partnership을 통한 거래규모의 확대와 컨설팅 영업력 강화, Blue Ocean 시장에 대한 맞춤형 자산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운용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거래법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영업본부 영업현황(잔고)



FY2006 말 법인금융상품 판매잔고는 전년대비 2조 5,756억원 증가한 5조 1,61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내 5대 증권사의 금융상품 판매실적은 아래와 같이 미래에셋증권과 D사만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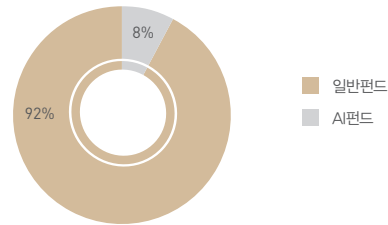
주요증권사 금융상품 판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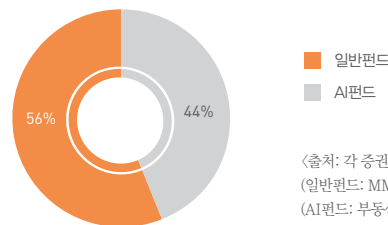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 법인금융상품영업은 주식, 채권형 등 전통적인 펀드 마케팅뿐 아니라 시장의 니즈를 선도하는 RCF(Reverse Convertible Fund), 부동산, PEF, 특별자산, BTL 펀드 등 대체투자펀드(AI펀드) 마케팅을 강화하여 타사 금융상품 판매 비중과는 차별화된 판매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권사 법인부 수익증권 판매 비중

타사평균



미래에셋증권



향후 법인금융상품영업환경은 '고경쟁/저보수'와 '새로운 상품시장 선점'으로 요약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시장의 니즈를 선도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Red Ocean에서 저보수를 받는 수동적인 판매사 역할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고 종합자산역량 확대, Globalization, IB역량강화, 창의적 인재육성의 4가지 전사적 추진전략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법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를 통한 전략적 Partnership을 통해 시장환경을 극복하고 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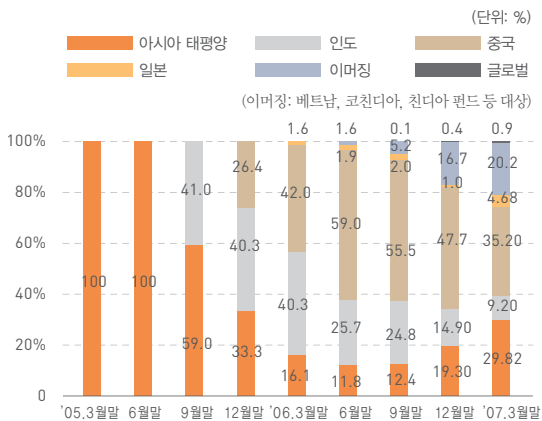
Overseas Fund & PEF_해외투자상품 및 PEF

Overseas Fund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 및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외상품을 기획,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형, 해외혼합형, 해외채권형, 해외부동산, 해외파생상품, 해외뮤추얼펀드와 AI상품 군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상품, PEF, 특별자산을 고객에게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산배분과 글로벌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FY2006 말 기준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의 비중은 55%: 45%이며 이는 국내주식에 대한 편향이 심한 국내투자자에게 다양한 해외투자기회를 제공하여 Global한 자산배분이 이루어짐을 증명합니다. 특히, 지난 FY2005 말 대비 해외상품(AI펀드포함)자산은 8기말 176% 증가했으며 매 분기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 해외펀드 지역별 투자비중



미래에셋증권의 해외주식형펀드의 잔고는 2005년 2월부터 해외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 2조 8천 5백억원에 달하는 잔고를 보유하는 등 꾸준히 시장점유율과 잔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쌓아온 해외시장 노하우와 투자자의 신뢰를 통해 해외펀드 잔고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객 신뢰의 바탕에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상황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고객 니즈에 부합되는 상품을 적시에 출시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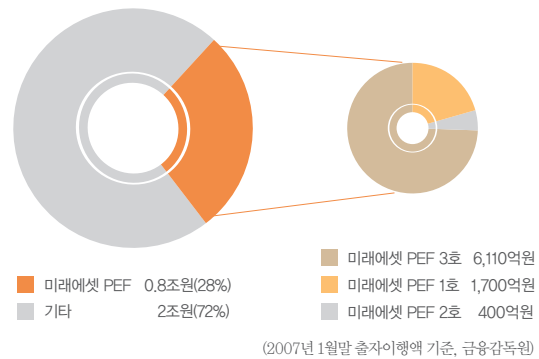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의 해외펀드는 크게 지역투자펀드로는 글로벌, 아시아 태평양, 유럽으로 그리고 국가투자펀드로는 중국, 인도, 베트남을 기

초로 한 신흥시장과 미국, 일본 선진국 시장 그리고 그 외의 글로벌지역에 대한 투자포트폴리오는 해외운용사의 역외펀드로 투자자의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투자비중은 신흥시장, 아시아태평양, 글로벌펀드로 적절히 분산되어 투자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다소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해외 재간접 펀드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등 적절한 자산배분과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해외상품(AI펀드 포함)은 검증된 상품 제공능력과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그리고 타사와 차별화된 사후서비스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앞으로 시장 상황에 편승하지 않고 한 발 앞서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며 빠른 투자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Private Equity Fund

국내 PEF 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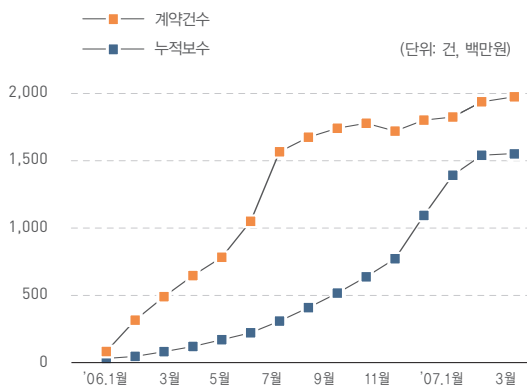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은 PEF야말로 고객의 자산관리와 국내 유망기업들의 질적수준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제도시행 초기부터 PEF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시장에서 미래에셋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04년 12월 한국 최초의 PEF인 미래에셋파트너스1호(1,400억원) 설립 이후, 2호(2005년 9월, 400억원), 3호(2006년 12월, 6,110억원)를 설립함으로써 총 7,910억원의 PEF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말 기준 국내 PEF 총출자여행액 2.8조원의 28%에 이르는 규모로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PEF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향후 PEF 사업 추진에 가속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Asset Management

Trust_신탁상품

미래에셋증권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하여 지난 2005년말 신탁업 인가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증권업, 보험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합자산관리컨설팅회사를 지향하는 미래에셋증권은 다양한 금전·재산신탁상품 라인업을 통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누적보수 및 계약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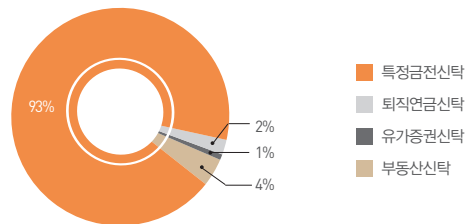
FY2006 말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수탁액은 8,365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전신탁 7,910억원,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재산신탁은 455억원이며 총 신탁보수는 16억원입니다. 평균 신탁 보수율은 0.35%이나 주식, 부동산, 벤처투자 등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신탁상품 출시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탁팀의 신탁잔고는 2000년초 이래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후반부터 다양한 재산신탁상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신탁잔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FY2006말 잔고가 8,365억원이었으며, 9기말 잔고는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증권사 신탁부문은 1년 3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16조원의 수탁고를 달성하였으며 미래에셋증권은 이 부문에서 MS: 6%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리테일 고객을 위한 6가지 상품과 기타 법인 및 VIP고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래에셋 프리미엄 예금형신탁'은 업종간 장벽을 넘어 증권사에서 은행의 정기예금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에셋 부동산신탁'을 통해 부동산금융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개인부동산자산관리까지 상품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미래에셋 적립식 DLT신탁'은 적립식펀드의 강점을 살린 상품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종합자산관리 노하우와 접목되어 고객자산관리 능력을 한 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신탁상품 구성비

(2007년 3월말 기준)



2007년 이후 신탁잔고 예상

(단위: 조원)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164.1	179.5	197.9	218.5
증권	16.7	23.5	27.9	34.5
증권비중(%)	10.2	13.1	14.1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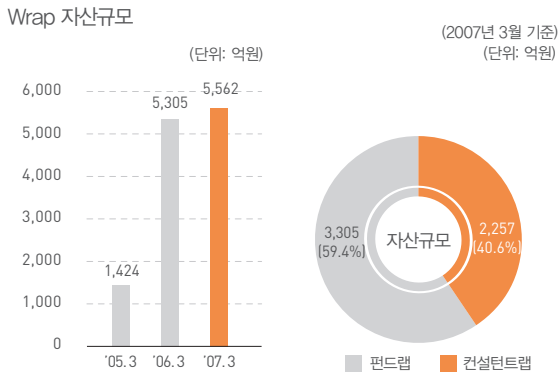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에셋증권 신탁상품구성비는 금전신탁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신탁 등 재산신탁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셋증권은 금전신탁의 외형을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수익성이 높은 재산신탁 위주의 영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Wrap Account 랩상품

미래에셋증권은 2001년 2월 국내 최초로 자문형 Wrap Account 를 판매한 이후 2003년 10월 일임형 Wrap Account를 통해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선도 증권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Wrap Account는 FY2006 말 현재 총 5,562억원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주식운용 중심의 Consultant Wrap이 2,257억원(40.6%), 펀드 및 수익증권 중심의 Fund Wrap이 3,305억원(59.4%)로 안정적 자산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Wrap Account 전체 자산규모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나, FY2004 총판매액 1,424억원 대비 4,138억원 증가한 것으로 2년 누적증가율이 291%에 이릅니다. 2007년 3월말 현재 Wrap Account 연간 수익은 73.6억원으로 Consultant Wrap과 Fund Wrap이 각각 57.8억원, 15.8억원 씩을 차지합니다. 이는 업종 내 최상위 수준의 수익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연 3.0% 내외인 Consultant Wrap비중이 큰 것에 기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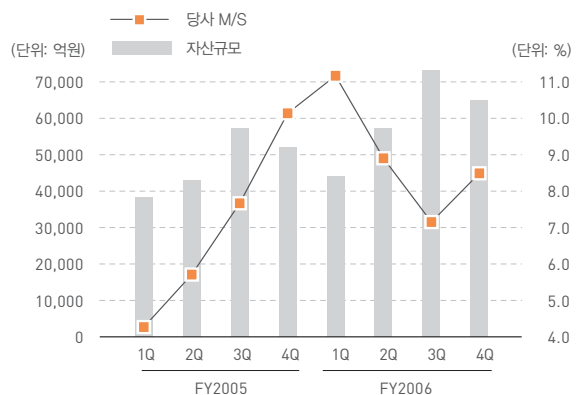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22개 증권사가 랩어카운트 인가를 취득하였으나, 16개 증권사만이 Wrap Account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미래에셋证권을 비롯한 주요 7개 증권사의 영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FY2006 말 현재 국내 Wrap Account 시장규모는 6.5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상위 7개사의 비중이 전체규모의 82% 정도를 차지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MAPS WRAP(MiraeAsset Portfolio Service WRAP)' 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신상

품 출시와 안정적 운용성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주식운용이 중심이 되는 Consultant Wrap 위주의 영업에서 역량을 확대하여 Fund Wrap 자산증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운용성평가 우수한 국내의 대표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Rebalancing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Package형 상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아시아지역은 물론 유럽, 아메리카 등으로 투자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인덱스펀드·섹터펀드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Wrap 전용 W-Class 활성화를 통해 수수료 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더욱 충실할 계획입니다.

2007년 Wrap Account 시장은 다양한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Fund Wrap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 역시 다양한 Fund Wrap 상품 출시를 통한 자산증대 영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변화의 선도적 위치에서 펀드판매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리테일 영업을 강화하고 연기금을 비롯한 법인 운용자금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Wrap Account 활성화의 도약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8% 대에 머무르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FY2007 말 10%중반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Wrap Account 시장규모 및 당사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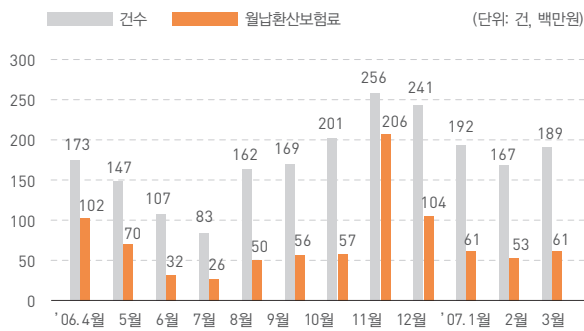


Asset Management

Bancassurance_방카슈랑스

모든 금융영역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모집관련 비용 등을 낮춘 저렴한 보험료의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상품을 위주로 보험상품의 세계혜택을 통한 투자수익 증대 및 노후설계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생명보험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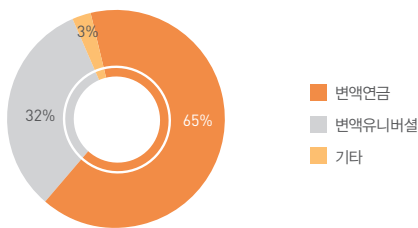


방카슈랑스 수수료의 경우 월평균 4억6천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FY2006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방카슈랑스 총 수수료 수입은 55억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주로 변액보험상품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변액유니버설 보험, 노후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연금보험 등 장기투자과 노후대비, 세계 혜택이라는 3대 포인트에 충실한 상품들입니다.

FY2007 미래에셋증권 방카슈랑스는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노후 자산 형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변액연금보험 위주의 상품 판매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기존 제휴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 하나생명 이외에 흥국생명, 금호생명, 동양생명과도 추가 제휴를 진행하였고, FY2007 상반기 중 신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고객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상품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카슈랑스 생명보험 판매상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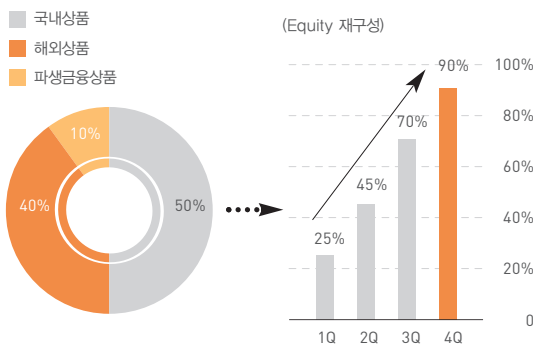


FY2006의 경우 미래에셋생명과 하나생명의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했는데, 월납 환산 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7천만원의 실적으로 증권사 중 업계 수위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Asset Management Consulting_자산운용컨설팅

미래에셋증권은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2005년 자산운용컨설팅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산운용컨설팅본부는 업계 최초로 시도된 투자정보, 세무, 자산배분 및 투자교육파트가 집약된 조직으로서 예탁자산의 단편적인 관리에 한정된 기존 은행권의 자산관리서비스보다 한 걸음 나아가 고객의 다양한 재무적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통해 리테일 고객에게는 시의적이고 다각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상층부 고객에게는 전문화된 컨설팅능력을 바탕으로 자산배분설계와 세무컨설팅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시스템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본부는 고객의 특성과 운용기간, 자산 규모, 연령 등을 감안해 최적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세무사를 비롯해 주식전략가, 투자교육 박사 등 업계 최고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품, 음악 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분야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내 전문인력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산운용컨설팅본부는 영업점 지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전문가 양성프로그램(Asset Manager Academy)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Basic, Intermediate, Expert, Master, VIP의 5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업점 자산관리자의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며, 단계별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자산관리자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PB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건전한 투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투자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효과적인 자산관리 원칙'이라는 주제로 총 35회 지점의 재테크 설명회를 지원했고, 언론사와 대학교 등 전문기관을 통한 투자교육을 20회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증권업협회 및 증권선물거래소 등 외부기관 요청에 따라 '성공으로 가는 자산관리전략' 등의 주제로 40회의 강의를 수행하였으며, 업계 최초로 전국 동시 투자교육세미나를 실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무 전문인력과 함께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활발히 이루어져 각 영업점 VIP고객 및 HNWI를 대상으로 85건 이상의 전문 제안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간접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어 대형 투자은행이 출현하면 국내 금융기관에게는 보다 전문적, 통합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시하는 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금리와 저성장,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국내 시장의 특성상 앞으로의 자산관리는 투자가 중심이 될 것이며 증권사의 사회적 역할도 점차 커져갈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운용컨설팅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한걸음 앞서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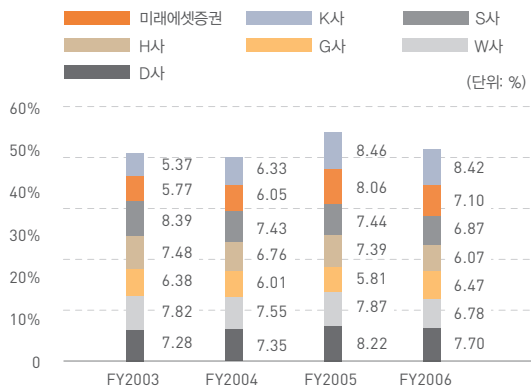
Brokerage

E-Biz 온라인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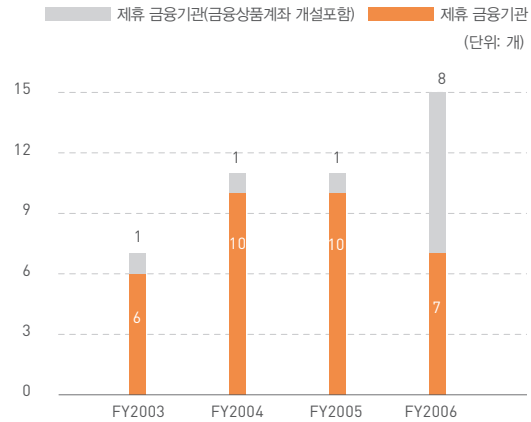
유가증권 중개시장 거래대금 중 Retail부문 거래대금 비중은 모든 상품부문에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로 인한 기관거래비중 증대 및 개인고객 투자성향의 간접투자화가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FY2006 주식시장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위탁부문 시장점유율은 7.1%로 전년에 이어 주식위탁시장에서의 순위변동은 없었으나, 종합자산관리 회사로서의 영업정책에 따른 고객 미수금 감소 등의 이유로 주식위탁 시장점유율은 전기대비 약 1%p 하락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리테일부문의 거래대금 감소로 대부분 상위 증권사의 주식 온라인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식 및 선물·옵션의 중개업무 시장에서는 리테일 비중이 감소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리테일 금융상품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금융상품 거래 Needs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금융상품시장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위탁시장에서는 수익성 증대를 위해 Mobile 매체 활성화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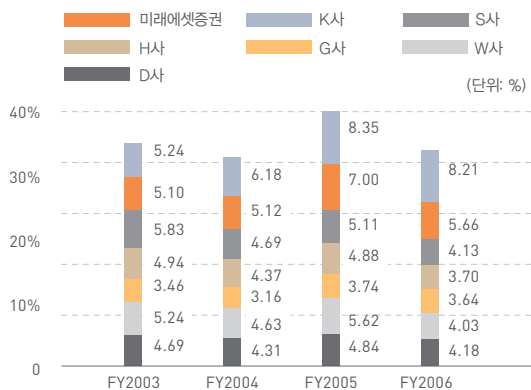
주식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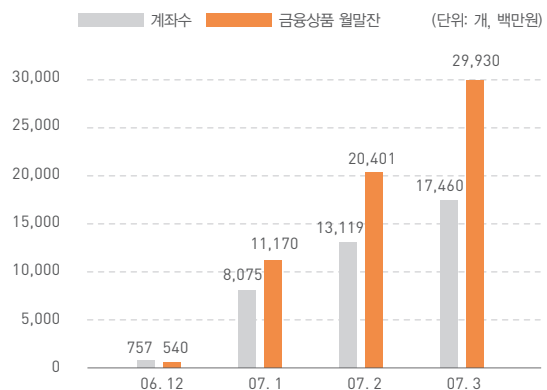
제휴금융기관



주식 온라인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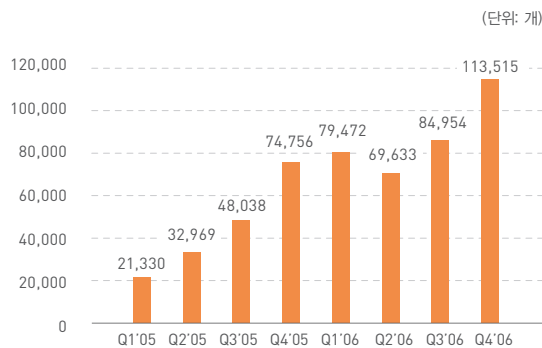


미래에셋생명 누적계좌 및 금융상품월말잔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계좌 개설 채널은 물론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휴 금융기관을 FY2006에 업계 최대수준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보험권과의 CMA 및 증권계좌 개설대행을 시행함에 따라 양 업종간 시너지를 창출하였으며, 홈페이지상 온라인 금융상품 센터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증대하는 등 고객의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을 이용한 금융상품 매수는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온라인 매수 건수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주식시장에서 저렴한 수수료정책을 유지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에도 고객만족도 및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며, 적립식펀드의 활성화로 이미 대중화 되어있는 간접투자상품 시장에서 온라인거래의 니즈가 있는 고객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및 Contents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금융상품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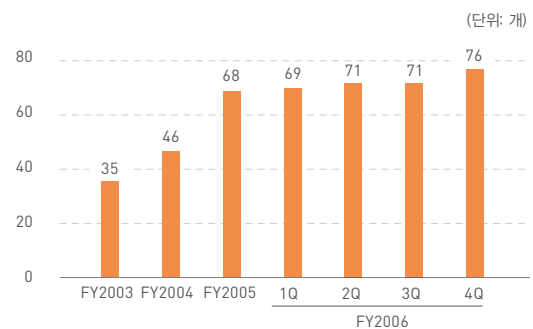
증권사 수수료현황

구분	백만원 거래시	천만원 거래시	백만원거래시	천만원거래시
미래에셋증권	0.029%	0.029%	290	2,900
S사	0.15%+1,500원	0.13%+3,000원	3,000	16,000
W사	0.18%+500원	0.13%+3,000원	2,300	16,000
H사	0.19%+500원	0.15%	1,900	15,000
D사	0.50%	0.14%+1,500원	5,000	15,500
G사	0.15%+1,500원	0.14%+2,000원	3,000	16,000

Sales & Marketing_영업추진

FY2006 미래에셋증권은 영업 면에 있어서 영업 Channel 확대, CMA 출시 및 영업 강화, 고객 확대 및 관리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영업 Channel 확대를 위해 FY2005 말 68개의 영업점을 FY2006 말 76개로 확대하였고, 8개점(도곡역, 청량리, 사하, 마산, 익산, 여의도, 산본, 구리)의 신설을 완료했습니다.

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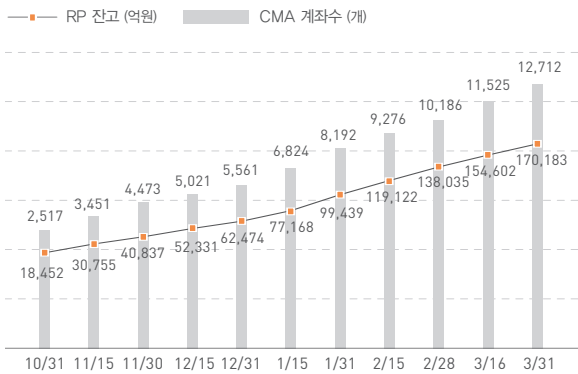
은행처럼 더 높은 접근성을 지닌 금융기관을 원하는 고객들의 Needs를 반영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점 확장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 각 분기별로 5개 영업점(총 20개점)을 신설하여 FY2007 내 총 지점수를 100개점으로 늘릴 계획이며, 제휴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영업기반 확충에도 힘쓸 것입니다.

FY2006 말 국내증권사의 CMA 계좌수는 228만 계좌 (잔고 14조 원) 수준이며 초기시장 국면에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증권사 CMA는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 기능의 강화로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2006년 10월 CMA계좌 출시 이후 FY2006 말 현재 CMA 170,183 계좌, RP잔고 1조 2,712억원을 유치하여 시장 전체 계좌수 중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잔고 중 9.1%로 업계 3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Check Card 기능 제휴, 법인 CMA, 국민은행 연계계좌 CMA 등 지속적으로 부가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Brokerage

FY2006 동안 234,094명의 신규고객을 창출하였고, FY2006 말 현재 거래 고객수는 413,489명으로 FY2005 말 대비 47.6%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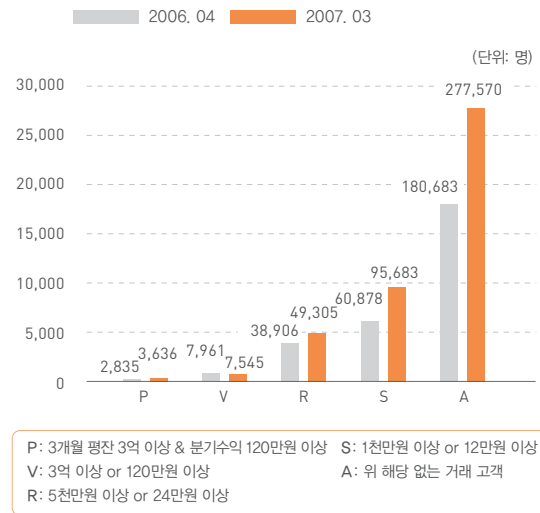
연간 RP 잔고 CMA 계좌수



FY2007 미래에셋증권의 주요 사업목표는 영업 Channel 강화, 신용거래 확대, CMA 영업 활성화, 고객관리 및 편의개선 등입니다.

신용거래 확대를 위해 미수동결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그 동안 미수 거래를 빈번하게 했던 시장 투자자들이 신용거래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용가능 종목을 1,000여개로 확대하고, 최소담보유지비율 축소, 증거금 30% 종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시장투자자들의 신용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우량 종목 투자고객들의 주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등급별 고객 증감 현황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현재 은행연계계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CMA의 고객편의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고 이는 점차 은행 Internet Banking과의 차별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CMA는 기존 은행의 요구불성예금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증권사의 대표적인 앵커상품(Anchor Product)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으로 CMA의 부가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비즈니스 강화를 통해 고객편의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추후 은행권과의 유사상품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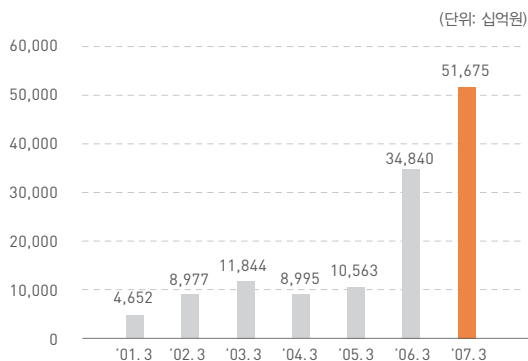
FY2007 미래에셋증권은 VIP 전용채널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VIP 전용상품 및 서비스개발 등 VIP영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고객 관리강화를 위하여 Call 집중 제도, 업무집중처리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고객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동화기기 도입을 통해 현금출금 및 각종 증빙서류발급, 통장정리 등의 단순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영업점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Institutional Sales_법인위탁영업

FY2006 미래에셋증권 법인위탁매매영업은 2004년부터 지속되어 온 적립식펀드 잔고증가와 연기금 주식투자 증가, 변액연금보험 증가 등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 수탁고 증가, 그리고 견조한 주가상승 등에 기인하여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Q	2Q	3Q	4Q	2006Y	2007(E)
9,595	9,992	10,400	12,518	42,192	57,000

시장 주식형 펀드 잔고



FY2007에는 지난 3년간 국내 주식형잔고 증가의 핵심이었던 적립식펀드 환매압력(연간 5조원)이 예상되지만 일정부분의 환매 이후 신규 적립식펀드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6조원 내외의 연기금 주식투자자와 2조원 정도의 변액보험 신규 주식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퇴직연금시장도 그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식투자 및 잔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인 투신 및 자산운용사의 운용규모가 늘어나 미래에셋증권 법인영업의 수익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FY2007에는 삼성전자, POSCO 등 국내 기업들의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이 예상되어 법인영업의 자사주 매매활성화와 정부보유지분 주식처분도 활발해짐으로써 수익 증대가 예상되며, 늘어나는 계열사(미래자산운용)의 주

식형 수탁고 증가도 법인영업의 수익증가와 수익안정성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기관 외에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기업관계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의 리서치조직의 포괄적인 사업접근 노하우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관련 투자정보와 투자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해외주식판매부문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판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고객에 대한 서비스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2007년 1월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홍콩현지에서 해외주식 중개부문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FY2007에는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국제 브로커리지 비즈니스의 입지를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강력한 국내 영업조직과 리서치센터를 활용하여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Brokerage

Research Center_리서치센터

업계 최고의 리서치센터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국가 및 산업 분야별 coverage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법으로 진정한 시장 관측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험 많은 전략 분석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대응과 심층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폭넓은 산업 및 기업 분석을 제공하며, 고객중심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소스와 툴을 이용하여 기업 데이터에서 시장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데이터를 다루는 최고의 리서치 DB시스템을 갖추고 연중 1,200회의 Analyst Seminar와 매년 분기별로 내외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센터 성과

- 2007년 1월 매경이코노미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조사에서 10여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 및 4개 분야(시장분석, 증권, 제약, 화학)에서 1위를 기록
- 국민연금기금, 새마을금고, 삼성투신운용 등 주요 국내기관투자자들의 리서치 센터 평가에서 '최고등급' 기록
- 2006년 매경이코노미 선정 베스트 리서치 증권사 평가 5위 기록
- 2004년 조선일보 선정 '가장 정확한 시장 전망을 내놓은 리서치 센터' 로 선정
- 2004년 헤럴드 이코노미 데일리로부터 '#1 in Head of Research' 및 2000년 이래 'Best Strategist' 선정

산업분석

- 24개 산업분야에 대한 분기별 심층 분석 리서치 간행
-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Trend의 변화를 감지하여 산업 및 기업별 현황분석은 물론 통찰력 있는 트레이딩 아이디어 제공을 통해 시장을 주도
- 정기적 포럼과 기관 투자자 세미나 및 콜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집행시 아이디어와 투자 추천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마케팅

기업분석

- 현재 160개 기업 coverage (전체 시가 총액의 약 70%)
- 기업방문, 기업분석, 실적 전망 및 쟁점분석을 통해 시장 변화에 발 빠른 대응
- 안목 있고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한 투자전략 제안

수급분석 (Liquidity Tracker)

- 국내 주식시장의 깊이 있는 수급분석자료를 매주 제공
- 펀드 자금, 투자신탁, 연금기금 및 보험사 등 국내기관투자자 현황 및 개인투자자 심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 AMG Data, Strategic Insight 및 Tremont에서 제공하는 펀드흐름과 주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현황 파악
- 아시아시장과 관련한 Global Liquidity Research 자료제공
- 'Liquidity Matters' 과 'Liquidity Spot' 자료는 수급분석에 유의한 idea를 제공함

Asia-Pacific 분석자료

국내 증권사 최초 Asia-Pacific관련 특화된 분석자료 출간으로 국제적 경쟁력 확보

- 1) "Asia-Pacific Economics" : Asia-Pacific지역 12개국의 경제분석자료 (Monthly update)
- 2) "The Guiding Light"(Asia-Pacific sector Earnings & Valuation) : Asia-Pacific 국가들의 산업 및 개별기업 등에 대한 Earnings, Valuation Guide Book (Monthly update)
- 3) Asia-Pacific지역 산업 및 개별 기업분석자료 출시(예정)

미래에셋증권 MPustat D/B 시스템

- 리서치센터가 기업분석 및 선별, 사업분야 모니터링,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 국내 및 아시아 시장을 cover하는 FnGuide 및 I/B/E/S에서 제공하는 기업 실적 전망 컨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기업분석 및 심사 가능해짐
- 100여 개가 넘는 데이터 소스에 기반한 1,000개가 넘는 거시 지표의 주간 모니터링
- 거시적인 요소와, 수익 요소, 평가 및 기술적 요소를 종합하여 200여 개 투자지표 산정, 측정/비교/분석을 통해 전망 있는 산업 그룹과 기업으로 이루어진 모델 포트폴리오 제공

미래에셋증권 실적 전망 모델

-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계정항목별 요약 및 상세 전망치를 제공하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분기별 실적 전망을 작성합니다. 센터에서 다루는 모든 기업에 같은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주요 지표 및 재무제표의 산출에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사 리포트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Investment Banking

IPO Underwriting_IPO업무

미래에셋증권은 전통적인 IB업무를 기초로 기업고객의 니즈에 맞는 재무전략 컨설팅, 채권 및 주식인수 등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Y2006에는 IB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발행사 인지도를 높이고 청약참여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우대고객 청약제도와 수요예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및 일반/기관투자자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의 중간사 계약체결 등으로 IPO의 양적/질적 향상을 이루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구분	'05년	'06년	증감율
상장법인수 ^{주1)}	916	962	3.4%
신규상장			
전체	70	53	(24.3%)
벤처	61	43	(29.5%)
일반	9	10	11.1%
상장폐지	40 ^{주2)}	10	(75.0%)
예비심사			
청구	93	72	(21.7%)
심사	76	63	(17.1%)
승인	63	50	(20.6%)
승인율	82.9%	79.4%	-

주1) 신규 상장일 기준. 단, 청구기업수 및 승인기업수는 청구일 기준

주2) 12월 30일, 피흡수 합병으로 상장 폐지되는 1사 포함

FY2006 말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은 962사로서 전년도 대비 46사 (5.0%)가 순수증가하였습니다. 신규상장은 전년대비 24% 감소하였으며 상장폐지법인수 또한 75%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 63사를 심사하여 50사를 승인하였습니다.

구분	'05년	'06년	증감율
대상기업수 ^{주)}	69	53	(23.2%)
공모총액	878,773	635,490	(27.7%)
평균공모액	12,736	11,989	(5.9%)
평균 주당공모가	8,910	8,766	(1.6%)

주) 해당연도 신규상장법인 기준

FY2006 신규상장법인의 공모현황은 공모일시 기업수는 전년대비 23%(16사) 감소하였으며, IPO를 통한 자금조달금액도 28%(6,35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기업별 평균 공모액은 전년대비 6% 감소한 120억원이며, 주당공모가는 2% 감소한 8,766억원 이었습니다.

구분	2006년			
	Q4	Q3	Q2	Q1
인수 수수료 IPO	-	450	-	3,116
유상증자	-	-	-	171
소계	-	450	-	3,287

(IPO: 평산, TLI, 젯텍(코스닥상장) 유상증자: 동아화성)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공모금액	81.71	137.12	39.76
공모건수	3	11	4
M/S(%)	13	16.1	9
Ranking	3	3	3
수수료	4,321	3,917	4,867

(출처: 블룸버그, 코스닥시장 기준), (Calendar Year 기준)

FY2007 미래에셋증권 IPO Underwriting은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요 그룹사 등 대형사의 Deal을 우선하여 시장점유율을 증대시킴으로써 IB의 대형화를 추진하며, VC네트워크 등을 통한 기회/영역 확대 및 PI담당자 전문성 함양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PI부문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에셋증권 IPO Underwriting은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성이 높고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주력해 왔으나, FY2007에는 주요 그룹사의 기업공개를 우선하여 대형법인 중심의 유가증권시장부문 주요 Underwriter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IB Products_IB상품

미래에셋증권은 주식/채권 등을 통한 전통적인 IB업무(회사채 및 주식연계채권(CB, BW, EB)인수, 유상증자, 해외증권인수, 공개매수 등), 기업고객 컨설팅업무(재무전략, 자금조달 등), Principal Investment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대형화와 함께 금융시장환경이 수수료 기반의 중개업무 위주에서 투자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IB사업은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전략적인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IB와 파생상품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개념의 IB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기업고객의 특화된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증권시장의 확대로 해외통화표시 증권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한 해외 투자자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B 1,2 팀 영업실적 현황

인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회사채	주식연계채권	유상증자
금액	395,000	30,000	105,862

미래에셋증권은 풍부한 시장경험과 재무전략을 바탕으로 뛰어난 창의력을 가미하여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상품을 통해 수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FY2006 업무실적

- 선박펀드: 창명해운, 대립HZZL 등 200억
- 조선소펀드: SPP조선 등 400억
- 실물펀드 (농, 축산물, 와인 등): 80억
- 인수금융 Financing Fund(대우건설): 1,200억

FY2007 추진업무

- 해외광물자원펀드
- 탄소펀드(A)
- 탄소펀드(B)
- 한우펀드 2호
- 엔터테인먼트 펀드
- 아트 펀드

현재 국가적으로 에너지자주개발률(Overseas Production Ratio)을 높이기 위한 자원 마련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련 분야(유전, 광물 등)에 많은 자금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CDM사업과 관련하여 탄소펀드 출시가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잇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박펀드는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기업인수금융분야에서도 펀드를 통한 인수자금 모집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vestment Banking

OTC Products_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시장은 2003년 이후 매년 2배정도의 급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 가운데 2006년은 양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ELS의 독무대였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모집된 ELS는 22조원을 넘어섰으며, 개장 1주년을 맞은 ELW시장은 거래량과 발행 종목수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미래에셋증권은 2006년 3월 장외파생업무 인가를 취득하여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DLS 공모 시장에서 2007년 3월말 현재 79%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에 발맞춘 매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누적발행
발행규모	3.4	5.7	15.2	22.2	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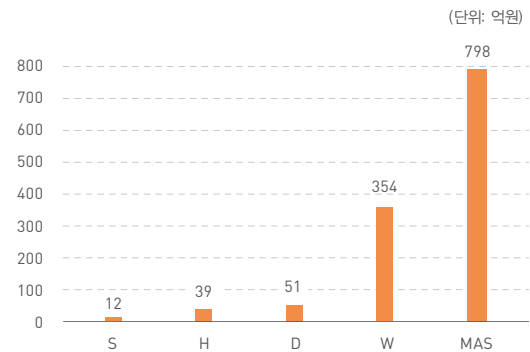
2006년 ELS 발행유형은 국내 증시의 움직임과 변동성에 따라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기존 하이파이브형 조기상환형이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는 상황에서 Step Down형 (행사가격하향조정형), Triple Jump형, Cliquet 형 등 새로운 유형의 ELS가 출시되었습니다.

한편 개별종목의 비체계적 리스크가 부각된 점도 특징입니다. 즉 개별종목 ELS에 투자할 경우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초자산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해외자산, 실물 등 기초자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품구조의 측면에서도 금융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ELW 시장에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LP 호가 제공 및 운용인력 강화 등 집중지원을 통해 시장 선두권 진입을 달성할 것입니다.

2007년 3월말 현재 장외파생상품 실적 (단위: 건, 조원)

장외파생상품	건수	금액
ELS	117	6,573
DLS	22	1,110
ELW	18	944
합계	157	8,627

2007년 3월말 현재 DLS 공모실적



FY2006 말 현재 ELS에 대한 자체 Hedge는 600억원 규모로 발행 규모 대비 10% 수준이며, FY2007에는 인력 보강을 통해 자체 Hedge 비중을 발행규모 대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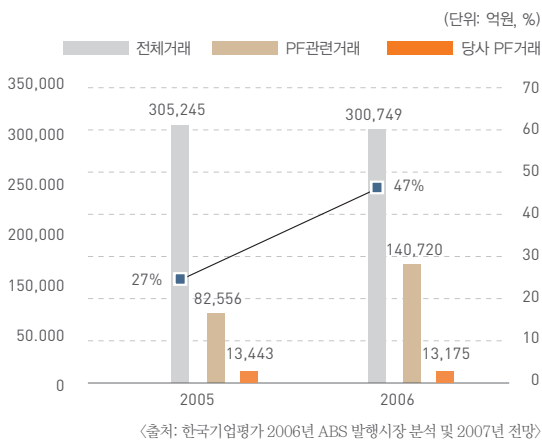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Principal Investment 및 Corporate Derivatives 등 신규 비즈니스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tructured Financing_구조화금융

미래에셋증권 Structured Finance 사업은 구조화금융 분야에서 상품의 인수·매출과 자기자본투자를 주요 업무로 2005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증권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건설시공, 부동산신탁 등의 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 받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주력 업무는 부동산개발 사업에서의 프로젝트 금융(PF) 구조화 및 주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I), PF 대출채권의 유동화, 매출채권·오토리스채권 등 각종 금융자산의 유동화 업무 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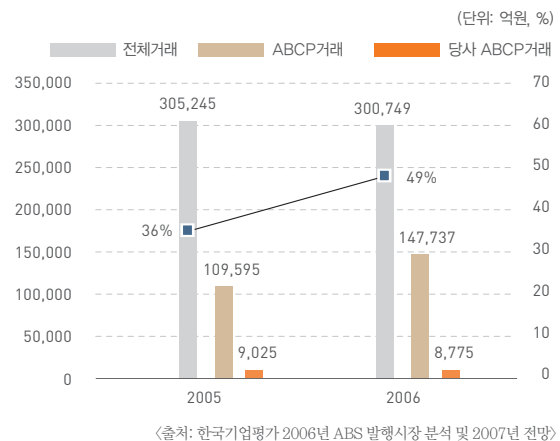
2006년 국내 구조화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PF 부문의 지속적인 강세와 PF를 제외한 다른 구조화금융 분야(MBS, CDO, 매출채권 등)의 퇴조입니다. 신용평가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도에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자산유동화증권 전체 30.5조원 중 약 8.3조원이 PF 관련 자산유동화증권이었던 것에 비해 2006년도에는 총 30조원 중 PF 관련 자산유동화증권이 약 14조원을 차지하여 그 비중이 27%에서 47%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05년에 약 1.22조원, 2006년에 약 1.32조원의 PF 거래를 수행하였습니다.

PF 관련 거래의 지속적 증가



한편 2006년에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발행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거래의 신속성, 금융감독기관규제의 최소화, 거래비용의 대폭 절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2005년에 전체 유동화 거래 291건 중 104건(35.7%)이 ABCP 거래였으나, 2006년에는 전체 거래 305건 중 171건(56.1%)이 ABCP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2005년에는 전체 유동화 거래 중 ABCP 거래가 약 46%이었는데, 2006년에 들어서는 약 82%가 ABCP 방식이었습니다.

ABCP 거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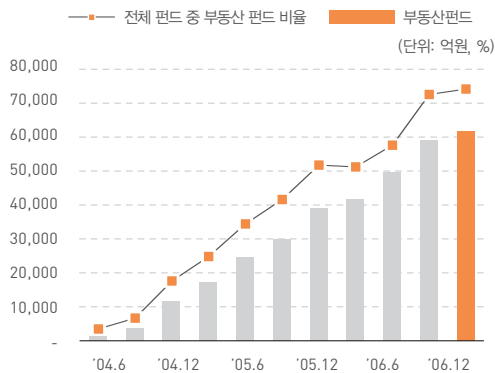
FY2007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과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민간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PF 관련 구조화금융 시장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SF사업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 PF 및 PF Refinancing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과 위험의 관계가 적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기자본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부동산개발, 실물부동산 인수, 부실채권 투자 등 국내 PF 이외의 자산에 대한 탐색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Investment Banking

Real-Estate Financing_부동산금융

과거 부동산시장은 불투명하고 단기시세차익에 의존한 투기성이 강한 시장이었으나, 점차 첨단 금융기법과 결합하면서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일부 개인 및 법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은 유동화를 통해 보다 많은 개인들이 이익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금융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단계에 이르러, 금융상품화된 부동산은 주식, 예금, 채권 등과 더불어 자산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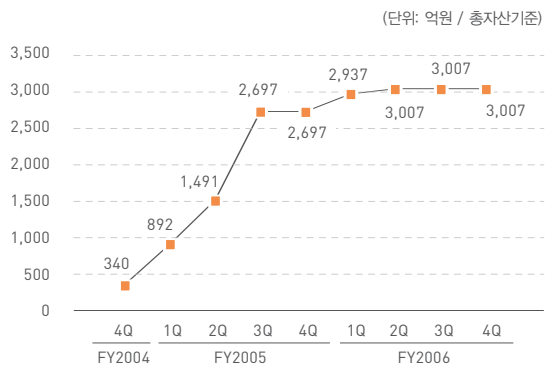
부동산펀드 수탁고 현황



부동산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에셋증권 부동산금융본부는 개발사업PF, 실물매입/매각, PI투자의 3가지의 영역에 업무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 Project Financing(PF)는 간접투자기구(펀드, ABS, 금전 신탁 등)를 통해 투자금을 아파트, 상업시설, 호텔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대출한 후 분양수입금 및 운영수입으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이며, 실물부동산 매입/매각은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Funding한 자금으로 오피스, 상업시설, 호텔 등을 매입하여 투자자들에게 운영수입(임대료) 및 매각차익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초의 REITs상품을 구성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바탕으로 실물부동산 매입/매각,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금융팀은 2004년 10월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총자산규모 3,500억원에 이르는 누적펀드 설정액을 기록하며, 실물펀드, PF펀

드, PI투자 등 다양한 부동산금융상품 구성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펀드 설정액(누적)



펀드 설정 내용

대상사업	펀드유형	자산규모 (펀드규모)	설정일
LG하이프라자	실물	340(160)	'05. 02
역삼동 제일모직빌딩	실물	552(276)	'05. 05
신대방동 삼성오피스타워	실물	299(170)	'05. 07
상주북합터미널	PF	300(300)	'05. 09
교보생명빌딩	실물	1,206(465)	'05. 12
한남동 외인아파트부지	PI/금전신탁	30/40	'06. 05
한남동 외인아파트부지	PF	204(240)	'06. 05

향후 부동산시장은 정부규제로 인한 아파트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물류센터, 호텔, 극장, 유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금융상품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특히 국내시장을 벗어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에 대한 부동산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양한 부동산금융상품 구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해외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IB역량을 강화하며, PI투자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한편 기설정된 펀드에 대한 자산관리능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Social Overhead Capital_SOC사업

미래에셋증권은 SOC(Social Overhead Capital)와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등의 민간 투자사업과 사회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금융자문과 다양한 방식의 금융기법을 통한 투·융자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영역 및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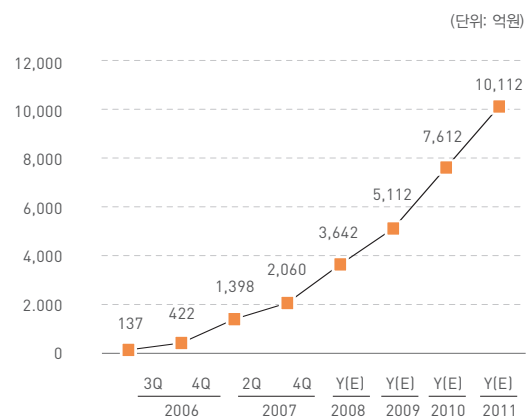
2006년 총 8건의 학교 및 도서관 건립 BTL사업에 금융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이 사업에 투·융자를 위하여 특별자산펀드 및 Project Financing 등의 방식으로 증권업계 최초로 1,700억원의 투·융자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5건의 군 관사 및 병영시설과 학교 BTL 민간투자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BTO사업은 도로사업 1건, 경전철 2건 등의 민자사업제안에 참여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과 기타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0.6조원에서 2006년 2.8조원에 이르며, 특히 2005년부터 도입된 BTL사업 규모는 2005년 약 3.8조원, 2006년 약 8.3조원, 2007년 약 9.9조원이 예상되며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2005년 중반에 SOC팀을 신설, 2006년 3분기부터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융자를 시작하였으며 계속해서 그 규모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SOC 사업 투자·융자 금액 (누적)



미래에셋증권 SOC사업은 향후에도 국내 민간투자법상의 BTL, BTO, BOO 등의 방식을 통해 학교, 군 관사 및 병영시설, 문화시설, 도로 및 철도 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및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에도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SOC사업을 위해 해외의 도로, 항만 등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 각국의 인프라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SOC사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유형과 위험구조,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금융과정에 대하여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문 및 대출알선 등의 서비스 제공에서부터 주간사 금융기관으로 다양한 금융기법을 동원한 실제 금융지원까지 사업의 전 영역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nvestment Banking

Project Development_프로젝트 개발

미래에셋증권은 부동산 Project Development 관련된 다양한 개발환경 변화에 선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기법의 다각화로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기존의 단기성 투자 및 회수구조가 아닌 사업 종료시점까지 장/단기 여러 가지 Tranche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종합부동산 금융기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새로운 개발투자개념은 준공 이후, 관리 및 운영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단기 투자회수구조보다 더욱 큰 책임감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 구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도형 구조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대규모 공모개발사업과 해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영역별로 관련분야 최고의 구성원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기간 중 최대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소액(개인) 및 기관투자자 유치를 통해 부동산펀드 및 REITs 등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펀드 및 REITs, 연기금 등을 대규모 사업개발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화 및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개발재원 확충으로 사업추진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금융주도형컨소시엄은 장기 투자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투자, 개발 및 관리가 분화되고 전문 시공업자와 운영업자의 호응이 뒷받침되어 구성됩니다.

※ 관리 및 운영(소유)단계를 포함한 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장/단기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시행 리스크 최소화를 실현합니다.

국내공모사업은 컨소시엄 구성 이후, 사업제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대규모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되는 Project로, 현재 판교 및 일산 등의 신도시 중심상업지구 공모사업 및 골프장 공모사업 등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개발사업에는 주차장과 터미널과 같은 기존 구도시계획시설의 현대화 사업, 기업도시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IB를 국내투자에서 국외로 확대하여 우량 부동산에 투자 및 개발하는 프로젝트로서 미국의 Manhattan, 두바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중입니다.

Merger & Acquisition_M&A 업무

미래에셋증권은 2006년부터 국내·외 고객들에게 M&A자문 및 Principal Investment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M&A자문, 회계, 세무, 컨설팅 등 각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M&A는 각 분야 전문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M&A자문, 인수금융 및 Principal Investment, 기업구조조정, Investment & Private placement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M&A자문은 국내·외 인수합병, 사업분할, 민영화, 주식공개매수(TOB), 경영권 방어, 전략적 제휴, Joint Venture, 우회상장 등을 포함하며, 인수금융 및 Principal Investor로서 투자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은 재정적으로 궁핍하거나 자본유치가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성장과 인수자금조달을 위해 Equity와 Mezzanine을 모두 포함한 재무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equity, mezzanine 및 자사주 등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기업, 정부기관, 그리고 Late-Stage의 PEF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모(Private Placement)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2006년 국내 M&A시장은 대형기업의 매각 및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자금과 사모펀드의 등장으로 인하여 최대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우량한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증권사 중 성공적인 Principal Investor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회수 방안 자문, 경영권방어 자문, 매수/매각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관련 규제완화, 기업들의 규모확대, 국제분업체제 구축과 사모펀드의 주도로 M&A시장의 활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M&A자문 및 인수금융 부문의 인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향후 금융투자회사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Principal Investment 비중을 강화할 것입니다.

Investment Banking

Fixed-Income Underwriting_채권영업

2006년 채권시장은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경기둔화 가능성 및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및 물가상승 압력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과 이에 따른 금리 예측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채권시장 참가자의 관망세가 이어져 발행물 증가에 따라 전체거래량은 증가하였으나 그 안에 포함된 실질적인 중계 약정은 감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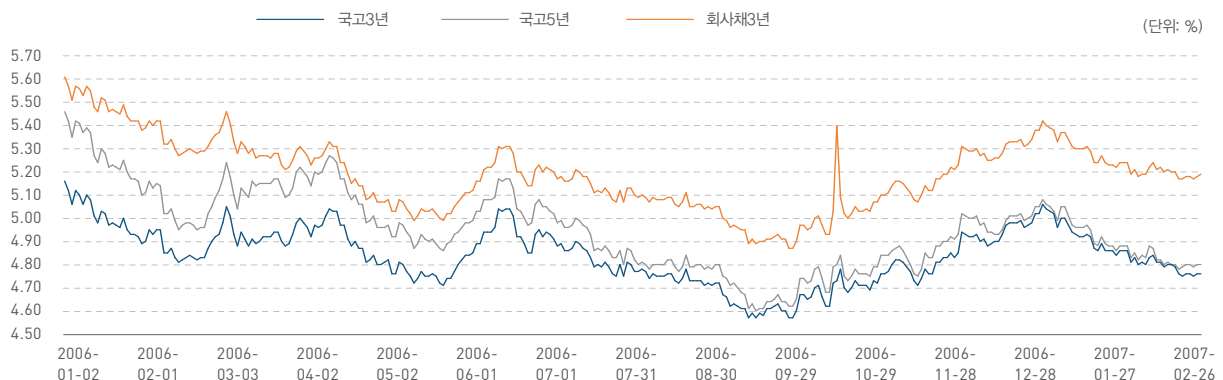
최근 2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관의 시장참여가 저조하였고 증권사 계약직팀들의 난립에 따른 증권사간 거래량 증가 등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내부의 리스크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각종 채권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였으며, 소액채권 매수전담사 운용에 따른 수익이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적극적인 채권 Dealing으로 월간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며 증권사 영업팀 평균 수익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FY2006 말 현재 채권중개 약정금액은 월 평균 14조원을 달성하여 전체 시장거래 월평균 285조원 수준을 감안하면 5%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에 42개 정도의 중개팀(계약직팀 포함)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단일팀으로는 업계 최상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소액채권 매수 전담사에 따른 국민주택 및 지역개발채권 거래량이 2005년의 1조 3,460억원 에서 2006년 5조 8,83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430%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간 약 60억원의 수익으로 11%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였습니다.

FY2007 미래에셋증권은 채권부문의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을 위하여 정공영업 강화 및 리스크관리를 주요 운영전략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액채권 매수/매도 대행사 및 각종 공사채의 입고대행사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영업을 강화하고 은행, 특수, 회사채 등 비지표 채권 중개영업을 활성화하며,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운용능력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국고 3, 5년과 회사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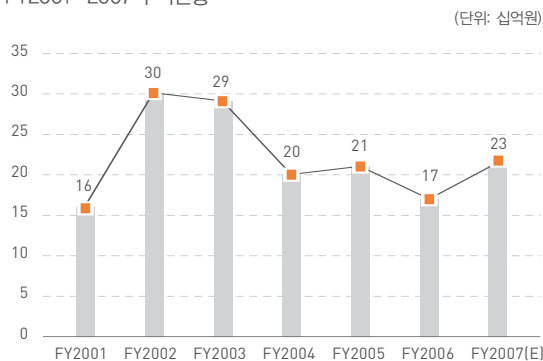
Proprietary Trading_자산운용본부

미래에셋증권은 Proprietary Trading의 일환으로 파생상품매매를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본부는 2001년 이래 파생상품매매 부문에 있어 지속적인 이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본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등록된 파생상품에 대한 매매를 주로 하는데 최근에는 금융공학을 이용한 시스템매매에도 진출하여 수익원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트레이더가 후임 트레이더를 교육하는 본부내 교육프로그램이 정착되어 파생상품매매에 있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Prop Trading은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변동성 안정화, 유동성 하락 및 개인투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FY2006에는 170억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FY2007에 자산운용본부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210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주가지수선물매매를 강화하고, 자동트레이딩 기반의 System Trading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KOSPI200 선물거래의 상대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자동 트레이딩 기반의 System Trading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 심리분석 및 시장경제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기술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FY2001~2007 수익현황



Corporate Pension

Corporate Pension Market_국내퇴직연금 시장규모

업계 퇴직연금현황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향후 시장규모는 2010년까지 40조원 이상, 10년 이후에는 250조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초기시장으로 가입금액이 8천억원대 미만이지만 퇴직금 추계액의 손비인정한다 축소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퇴직보험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급격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연도별 퇴직연금 시장규모 (추정)

연도	퇴직금 추계액	사외 적립률	퇴직연금 가입률	당해년도 시장창출	퇴직연금 누적액	중간장산 고려시
2007	121조	48%	7.6%	4.4조	4.4조	2.9조
2008	133조	50%	14.6%	9.6조	14조	9.2조
2009	146조	52%	5.9%	4.4조	18.4조	12.1조
2010	161조	54%	57.6%	49.2조	67.6조	44.6조

(출처: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보험업계는 수십 년간의 퇴직보험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퇴직연금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은 안정성과 퇴직신탁 판매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초기 퇴직연금시장에서 타업권에 비해 영업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증권사들은 자산운용능력 등 수익성측면의 이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하반기에 있었던 주요 공기업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증권업계가 다른 업권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수의 사업자로 선정 (총 25개사업자 중 10개)되면서 퇴직연금시장에서 증권회사의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증권업협회는 2006년 11.5%였던 증권업계의 퇴직연금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말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합계
			기업형	개인형	
은행	1,346	1,446	530	26	3,349 (36%)
보험	4,423	621	23	23	5,090 (55%)
증권	258	619	1	-	879 (9%)
계	6,027	2,686	554	49	9,318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시장 시장점유율은 증권업계에서 2006년 말 기준 18%이며 전체시장에서는 1.5%의 미약한 점유율을 나타내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퇴직연금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의 퇴직연금시장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코트라)에서 사업자 선정되었습니다.

미래에셋 퇴직연금교육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교육을 핵심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부역량강화와 가입자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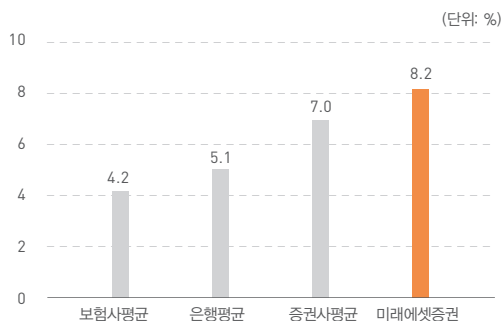
내부역량강화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요건이므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점 및 본사 담당자 대상 교육을 총 8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관련 시험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내부 담당자 교육은 정규 프로그램화하여 사내교육의 필수 사항으로 정례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가입 근로자 교육은 크게 온라인, 서면, 집합교육으로 분류되는데 이 모든 영역에서 미래에셋증권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자용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미래에셋증권만의 알기 쉬운 Content로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입자의 눈높이에 맞춰 얼마만큼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서면교육에 있어서도 제도진행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 총 12종의 책자, CD형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 역시 10회에 걸친 퇴직연금스쿨 개최 및 각종 기업맞춤형 세미나를 통해 얻어진 노하우와 평균 금융자격증 4.3개를 보유한 전국 지점의 금융컨설팅 역량이 합쳐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상품현황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2개 상품제공기관으로부터 DB용 24개, DC용 14개, DB/DC공용 16개, 원리금보장형 10개 등 총 64개 퇴직연금 상품을 Sourcing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등 대안상품 발굴을 통해 상품경쟁력확보를 통한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별 2006년 운용수익률 비교



2006년 한해 동안의 퇴직연금 사업자별 퇴직연금자산 운용수익률 비교공시 자료에 의하면 미래에셋증권의 2006년 운용수익률은 8.22%를 기록함으로써 보험사 평균 4.16%, 은행 평균 5.08%, 증권사 평균이 6.98%인 것에 비하여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적극적인 퇴직연금 자산배분의 결과입니다. 특히, 장기자산인 퇴직연금 성격에 맞추어 적절한 비중의 주식형 펀드와 중국, 인도 등 해외 투자펀드에 대한 자산배분을 통해 지역별 분산투자를 통한 안정성 확보와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기회 창출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자산배분 모델

장기자산인 퇴직연금자산의 투자 프로세스에 있어서 자산배분의 역할과 중요성은 다른 여타 자산운용의 경우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확정급여(DB)형 자산배분은 제도도입 기업의 연금계리적 분석에 의한 현금흐름 추정치를 기초로, 목표수익과 허용 위험수준, 유동성 수준 확보 등의 운용상 제약사항들을 기본 데이터로 하고, 여기에 Markowitz의 Mean-Variance 기준하의 Efficient Frontier 도출의 방법론을 사용하되, Ibbotson의 Optimizer Tool을 도입하여 Black-Litterman 기법과 Re-sampling 기법 등 최신 자산배분 이론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Efficient Frontier 도출상의 한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산과 대안투자자산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자산배분모델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델제시 이후 전략적 자산배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가치변화에 따라 변화된 자산비중을 Rebalancing 하고, 중기적으로는 Reallocation검토를 통하여 시장변화 및 기업 내·외부적 변화에 따른 배분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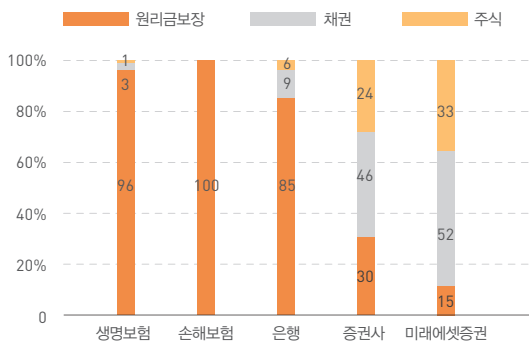
확정기여(DC)형 자산배분은 개인별 은퇴자금 마련의 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의 투자기간, 위험선호도, 가계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Life Cycle에 맞는 개인별 자산배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이나 상품 추종적인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시 Dollar Cost Average 효과가 반감하는 문제와 관련

Corporate Pension

하여 은퇴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변동성을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은퇴시점에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산배분 현황

퇴직연금 사업자별 자산배분비중 (2007년 3월말 기준)
(단위: %)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자산배분은 원리금보장자산 15%, 채권형 자산 52%, 주식형자산 33%로 선진국 연금 자산배분비중과 유사하게 적절히 분산 투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내 타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자산배분이 특정 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퇴직연금의 자산배분이 아직 한국에서는 일반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미래에셋증권의 자산배분현황은 적극적으로 자산배분전략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는 시장 선도자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 대응방안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더불어 한국회계기준원의 주도로 관련회계기준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IAS19)을 수용한 공개초안(06-36호 '종업원급여')을 2006년 하반기에 발표하고 이미 한차례의 설명회를 가졌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후 첫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이 기존 퇴직연금관련 회계기준과 다른 점은 퇴직급여와 관련된 채무 및 비용 산정방법에 있습니다. 기존방식이 단순한 청산가치에 의존했다면 공개초안은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종업원의 퇴직시점 및 급여를 추정하여 퇴직 시 지급할 퇴직일시금 또는 연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평가일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할 수 있는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확정기여형제도에서는 이러한 채무 및 비용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새로운 기준서에 따라 채무 및 비용을 산정해야 하므로 보험수리적 가정(퇴직율, 임금인상률, 할인율 등)에 따라 채무가 결정되고 기업의 손익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제회계기준 'IAS19'의 도입으로 기업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기준서(안)은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으로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퇴직급여채무의 평가가 필요 없는 제도(확정기여형제도, 중간정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보험수리적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 및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개초안 확정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도 함께 해결될 전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인적 및 물적 시스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험계리사 및 연금계리전문인력, Actuary전공 컨설턴트로 구성된 보험수리전문가 그룹을 갖추었으며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할 공인회계사와 공인노무사를 채용하고 있어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신속한 기업컨설팅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Content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진행중인 퇴직연금시스템에도 이러한 보험

수리평가 및 회계서비스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인적, 물적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급여채무의 평가 및 회계서비스에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투자기관 도입현황

정부투자기관 권역별 선정 업체수 (단위: 개)

구분	증권	은행	보험
사업자선정 기관수	14	11	11

(2007년 4월 기준)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마케팅본부는 2006년 12월 신설된 본부로서 신설 후 가장 큰 성과는 2007년 4월 기준으로 7개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5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도입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나머지 7개 기관과의 계약에 있어서도 타 금융기관보다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별 정부투자기관 퇴직연금 계약 현황 (단위: 개)

구분	당사	D사	S사
계약기관수	5	4	3

(2007년 4월 기준)

초기 퇴직연금시장은 보험사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권사가 권역별 비교에서도 가장 많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미래에셋증권이 동종업계 최다의 업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안정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정부투자기관에서도 '퇴직연금 = 투자 = 적립식펀드' 라는 공식을 인정함과 동시에, '장기자산에 대한 자산관리 및 배분시장' 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총 14개인 정부투자기관 중 10개 이상의 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Corporate Pension Marketing_퇴직연금 마케팅

퇴직연금마케팅 전략

퇴직연금마케팅본부의 제9기 영업목표 및 전략은 '차별화, 집중화, 복합마케팅 전개' 입니다.

향후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0년 이후 급속도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마케팅본부는 인력 확충 및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전사적인 복합마케팅 인프라 구축에 최우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Segment별 시장분석 및 집중할 시장을 선별하고, 각 시장의 Needs에 부합할 수 있는 컨설팅 제안에 중점을 두어 타 경쟁사와 차별화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향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퇴직연금시장에서도 'Leading Company' 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 1. 본부 조직 구성 및 전사적인 Co-Work**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
 - 내부 Network 활용 및 복합 마케팅 구사
- 2.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Target**
 - 시장선점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장
 - 공사/공단 등 CRM 구축 및 밀착관리
- 3. 시장분석 및 집중시장 공략**
 - Segment별 시장 지배력 있는 기업 집중
 - 시장에 맞는 퇴/연 제안

Human Resources

미래에셋증권은 2006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인재육성 목표를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통한 금융전문가 육성입니다. 차세대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고급과정을 확대하고 투자은행 인프라 구축을 위해 IB전문가를 육성하였으며, 종합자산운용컨설팅 회사로서 Asset Manager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은 물론 세무, 부동산, 보험, 재무설계, VIP마케팅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영업점 업무직원의 기본교육을 위해 영업점 업무기초 과정을 6개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중급, 고급과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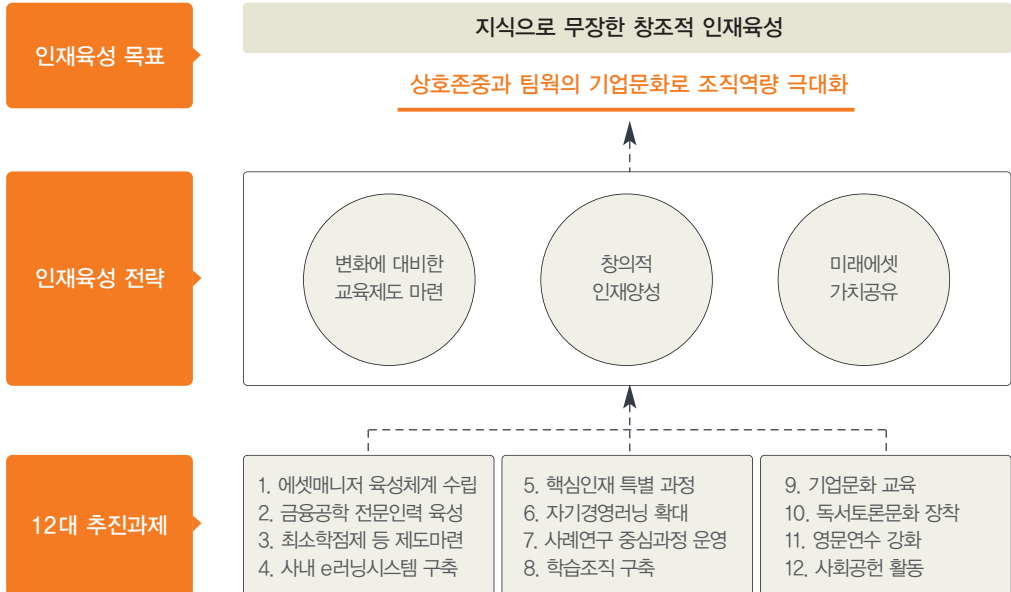
둘째,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자기주도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기경영 Learning 국제부문을 신설하여 직무 별 전문분야에 대해 개인이 직접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직무 별 전문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자기개발 욕구

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필요로 하는 200여 개의 다양한 사이버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문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신입사원의 조기전력화는 물론 체계적인 선발과 육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력사원의 경우에도 조직적응도 향상을 위해 미래에셋Manship이라는 입문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지식으로 무장한 창조적 인재육성'이라는 모토아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제도 마련과 창의적 인재양성, 미래에셋 가치공유를 세부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Asset Manager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Level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밖에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비하여 금융공학 과정 등 중장기 고급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무컨설팅 능력 강화와 지점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7년 인재육성 방향



Asset Manager 육성체계

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셋매니저 육성



Social Responsibilities

1. Read Need, Lead Trust

밝은 세상에 대한 꿈은 더 큰 신뢰로 이어집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씀으로써 더 큰 가치를 발휘하는 돈, 돈은 꽃이라는 철학아래 미래에셋증권은 수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소외된 곳을 비추고, 인재를 키우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2. 미래에셋 사회공헌활동의 목적

1)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실현

“미래에셋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익의 사회환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미래에셋 핵심가치중에서)”

2) 자원봉사문화확산에 기여

미래에셋은 조기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기업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자체 사회봉사단을 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함께 맘을 흘리며, 더불어 사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원봉사문화를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 금융인재육성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에 기여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을 지향하는 미래에셋은 글로벌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금융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연30명씩 10년 동안 총300명 대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위한 “나눔”

미래에셋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2000년 3월, 75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은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해 왔으며, 젊은 인재를 육성하면서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 활동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은 중요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미래에셋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미래에셋의 기업문화를 이해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봉사활동은 정기적으로 본부/부서/팀/지점별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무료급식, 목욕봉사, 연탄배달, 해비타트, 1사1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봉사활동 후기 및 소식은 커뮤니티사이트 (cafe.naver.com/weloveworld)를 통하여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 장학사업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여 1년간 전액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 나라를 짊어지고 한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과 지식을 쌓도록 지원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는 것을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며, 청소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교환학생 장학금지원까지 확대하여 펼쳐오고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 결식아동 지원, 연말연시 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생활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보호시설과 자매결연, 도서 및 컴퓨터 지원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프로그램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프로그램은 투자전문그룹을 선도해온 미래에셋이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의 절실함을 깨닫고 만든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후 10년간 선발될 300여명의 장학생들은 세계 유수의 대학 및 MBA과정에 진학하여 글로벌 투자전문가로서의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할 예정이며, 이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래에셋은 아무런 조건없이 연간 USD 5만불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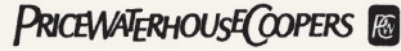
또한, 미래에셋은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등 미래에셋 해외 법인에서의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Financial Section

- | 49 |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 50 | . 대차대조표
- | 53 | . 손익계산서
- | 55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56 | . 현금흐름표

Auditors' Report

A member firm of



www.samil.co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국제센타빌딩(140-702)
서울용산우체국 사서함266(140-600)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의 2007년 3월 31일과 2006년 3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면 본 감사인의 책임은 등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의 2007년과 2006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주석9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대차대조표일 이후인 2007년 4월 20일에 해외자회사인 MiraeAsset Securities HongKong Limited. 에 HK\$375,000,000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경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07년 5월 1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Balance Sheets

제 8 기 : 2007년 3월 31일 현재

제 7 기 : 2006년 3월 31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8 (당) 기		제 7 (전) 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3,706,047,142,015		1,373,547,450,952
(1) 현금 및 예치금		1,042,297,247,866		745,655,609,976
1. 현금과 예금	452,572,336,405		135,174,907,137	
2. 예치금	589,724,911,461		610,480,702,839	
(2) 단기유가증권		1,914,576,934,347		334,504,501,013
1. 단기매매증권	1,914,576,934,347		334,504,501,013	
가. 주식	40,034,848,476		18,181,027,161	
나. 국공채	1,750,402,969,194		263,738,556,179	
다. 회사채	11,108,709,391		22,508,321,300	
라. 수익증권	93,030,407,286		30,076,596,373	
마. 기업융통어음	20,000,000,000		-	
(3) 신종증권		278,589,039,703		-
(4) 대출채권		321,320,365,722		148,501,484,386
1. 콜론	80,000,000,000		-	
2. 신용공여금	242,531,393,079		139,197,471,745	
대손충당금	(-)1,212,656,965		(-)695,987,359	
3. 단기대여금	50,790,687		49,241,060	
대손충당금	(-)49,161,079		(-)49,241,060	
4.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0,000,000,000	
(5) 기타유동자산		149,263,554,377		144,885,855,577
1. 미수금	102,452,035,060		131,798,378,438	
대손충당금	(-)4,669,847,436		(-)4,782,367,599	
2. 미수수익	26,791,362,224		15,597,841,933	
대손충당금	(-)599,717,259		(-)935,609,867	
3. 선급금	25,158,982,714		2,377,017,851	
4. 선급비용	130,739,074		830,594,821	
II. 고 정 자 산		212,950,961,926		136,134,374,207
(1) 장기유가증권		88,948,246,197		36,308,027,369
1. 매도가능증권	66,860,633,186		18,162,093,043	
가. 주식	18,496,909,536		11,418,943,043	
나. 출자금	5,900,150,000		5,900,150,000	

(단위: 원)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금	액	금	액
다. 회사채	10,534,270,000		843,000,000	
대손충당금	(-)276,171,350		-	
라. 수익증권	32,205,475,000		-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087,613,011		18,145,934,326	
(2) 투자자산		93,659,921,055		70,162,047,536
1. 장기성예금	20,302,900,000		23,900,000	
2. 장기대여금	8,552,212,970		11,402,131,540	
대손충당금	(-)42,761,065		(-)57,010,658	
3. 보증금	64,847,569,150		58,793,026,654	
(3) 유형자산		14,542,154,618		13,269,692,672
1. 차량운반구	1,316,424,797		2,015,366,452	
감가상각누계액	(-)623,773,605		(-)799,434,597	
2. 기구비품	45,635,257,082		40,943,018,001	
감가상각누계액	(-)31,785,753,656		(-)28,889,257,184	
(4) 기타고정자산		15,800,640,056		16,394,606,630
1. 대지급금	664,119,479		664,119,479	
대손충당금	(-)664,119,479		(-)664,119,479	
2. 손해배상공동기금	8,220,586,277		7,983,536,506	
3. 무형자산	2,829,999,564		3,343,682,525	
4.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	4,750,054,215		5,067,387,599	
자산총계		3,918,998,103,941		1,509,681,825,159
부 채				
I. 유 동 부 채		2,961,013,370,217		978,065,765,111
1. 콜머니	-		15,000,000,000	
2. 단기차입금	20,000,000,000		-	
3. 환매조건부채권매도	1,609,602,453,693		182,217,400,235	
4. 고객예수금	703,929,973,490		679,050,051,714	
5. 매도유가증권	8,462,699,405		-	
6. 매도신종증권	480,892,800,896		-	
7. 미지급법인세	21,342,007,327		31,070,388,520	
8. 미지급금	50,050,965,970		34,515,586,532	
9. 미지급비용	32,535,000,354		25,588,007,099	

Balance Sheets

제 8 기 : 2007년 3월 31일 현재

제 7 기 : 2006년 3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금 액		금 액	
10. 신용대주담보금	109,293		399,934,500	
11. 수입담보금	916,000,000		418,000,000	
12. 제세예수금	28,756,960,163		8,618,216,009	
13. 임대보증금	200,000,000		-	
14. 선수수익	10,000,000		-	
15. 파생상품부채	63,185,556		-	
16. 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	3,226,091,015		688,738,230	
17. 기타유동부채	1,025,123,055		499,442,272	
Ⅱ. 고정부채		1,624,854,930		1,376,569,740
1. 퇴직급여충당금	1,624,854,930		1,376,569,740	
부채총계		2,962,638,225,147		979,442,334,851
자 본				
I. 자본금		185,542,500,000		134,750,000,000
1. 보통주자본금	185,542,500,000		134,750,000,000	
Ⅱ. 자본잉여금		499,690,374,752		213,031,728,952
1. 주식발행초과금	496,074,011,180		209,415,365,380	
2. 기타자본잉여금	3,616,363,572		3,616,363,572	
Ⅲ. 이익잉여금		271,252,291,913		182,539,162,243
1. 이익준비금	5,853,400,000		3,158,400,000	
2. 선물거래책임준비금	49,911,396		156,109	
3. 처분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당기: 115,663,129,670원 전기: 91,526,679,803원)	265,348,980,517		179,380,606,134	
Ⅳ. 자본조정		(-)125,287,871		(-)81,400,887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20,146,564		35,070,217	
2. 부의지분법자본변동	(-)245,434,435		(-)116,471,104	
자본총계		956,359,878,794		530,239,490,308
부채와자본총계		3,918,998,103,941		1,509,681,825,159

| 손 익 계 산 서 |

Statements of Income

제 8 기 : 2006년 4월 1일 ~ 2007년 3월 31일까지

제 7 기 : 2005년 4월 1일 ~ 2006년 3월 31일까지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8 (당) 기		제 7 (전) 기	
	금 액		금 액	
I. 영 업 수 익		604,518,142,555		432,133,721,966
1. 수수료수익	263,565,032,737		234,076,310,580	
2. 이자수익	74,594,009,911		48,796,056,710	
3. 배당금수익	600,608,223		222,830,614	
4. 분배금수익	277,537,452		160,432,218	
5. 단기매매증권매매이익	45,432,769,043		45,806,159,259	
6.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9,624,306,535		1,421,729,843	
7. 신종증권매매이익	40,234,150,458		-	
8. 신종증권평가이익	14,343,286,574		-	
9. 매도신종증권매매이익	55,318,116,747		-	
10. 매도신종증권평가이익	4,030,525,447		-	
11. 별도예치금평가이익	23,300,689,909		18,383,758,873	
12. 파생상품거래이익	72,558,043,937		83,180,418,969	
13. 기타영업수익	639,065,582		86,024,900	
II. 영 업 비 용		446,455,344,532		294,587,460,884
1. 수수료비용	28,478,519,543		37,311,997,079	
2. 이자비용	37,218,271,196		15,048,378,831	
3.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	34,191,863,847		36,625,724,127	
4.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50,789,230		493,758,625	
5. 신종증권매매손실	55,433,204,946		-	
6. 신종증권평가손실	3,503,585,063		-	
7. 매도신종증권매매손실	41,058,001,049		-	
8. 매도신종증권평가손실	18,923,325,319		-	
9. 매도유가증권평가손실	876,098,977		-	
10. 파생상품거래손실	53,768,556,493		56,726,103,969	
11. 판매비와관리비	172,653,128,869		148,381,498,253	
III. 영 업 이 익		158,062,798,023		137,546,261,082
IV. 영 업 외 수 익		4,251,127,345		4,636,386,720
1.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26,789,105		334,062,563	
2. 유형자산처분이익	133,864,360		58,481,229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1,388,666,042		-	
4. 임대료수익	18,659,830		-	

Statements of Income

제 8 기 : 2006년 4월 1일 ~ 2007년 3월 31일까지

제 7 기 : 2005년 4월 1일 ~ 2006년 3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금	액	금	액
5. 지분법이익	2,232,048,922		3,625,216,203	
6. 외회환산이익	22,580,000		-	
7. 잡이익	128,519,086		618,626,725	
V. 영 업 외 비 용		2,028,734,444		13,834,120,451
·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1,248,744,180		3,921,490,757	
2.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8,844,094,653	
3. 지분법손실	-		652,070,865	
4. 유형자산처분손실	214,408,597		89,772,196	
5. 기부금	491,624,310		178,456,906	
6. 잡손실	73,957,357		148,235,074	
VI. 경 상 이 익		160,285,190,924		128,348,527,351
VII. 특 별 이 익		-		-
VIII. 특 별 손 실		-		-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0,285,190,924		128,348,527,351
X. 법 인 세 비 용		44,622,061,254		36,821,847,548
XI. 당 기 순 이 익		115,663,129,670		91,526,679,803
(기본주당경상이익 및 순이익 당기: 3,649원 전기: 3,403원 희석주당경상이익 및 순이익 당기: 3,649원 전기: 3,372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Statements of Appropriations of Retained Earnings

제 8 기: 2006년 4월 1일 ~ 2007년 3월 31일, 처분확정일: 2007년 5월 25일

제 7 기: 2005년 4월 1일 ~ 2006년 3월 31일, 처분확정일: 2006년 5월 26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8 (당) 기		제 7 (전) 기	
		금 액		금 액
I. 처분전이익잉여금		265,348,980,517		179,380,606,134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49,685,850,847		87,853,926,331	
2. 당기순이익	115,663,129,670		91,526,679,803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5,657,781		-
1. 선물거래책임준비금	5,657,781		-	
합 계		265,354,638,298		179,380,606,134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20,429,324,842		29,694,755,287
1. 이익준비금	1,855,425,000		2,695,000,000	
2. 선물거래책임준비금	19,649,842		49,755,287	
3.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500원(10.0%) 전기: 1,000원(20.0%))	18,554,250,000		26,950,000,000	
IV.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44,925,313,456		149,685,850,847

Statements of Cash Flows

제 8 기: 2006년 4월 1일 ~ 2007년 3월 31일

제 7 기: 2005년 4월 1일 ~ 2006년 3월 31일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금 액		금 액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04,876,157,526		(-)22,773,639,019
1. 당기순이익	115,663,129,670		91,526,679,803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36,854,416,275		24,623,075,685	
가. 퇴직급여	3,014,862,760		2,694,191,840	
나. 급여(주식보상비용)	770,235,000		-	
다. 감가상각비	5,752,202,051		5,172,930,116	
라. 무형자산상각비	1,392,082,961		1,999,518,319	
마.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50,789,230		493,758,625	
바. 신종증권평가손실	3,503,585,063		-	
사. 매도신종증권평가손실	18,923,325,319		-	
아. 대손상각비	808,082,137		755,248,314	
자.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1,248,744,180		3,921,490,757	
차.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8,844,094,653	
카. 유형자산처분손실	214,408,597		89,772,196	
타. 매도유가증권평가손실	876,098,977		-	
파. 지분법손실	-		652,070,865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55,880,740,420		(-)23,823,248,711	
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9,624,306,535		(-)1,421,729,843	
나. 신종증권평가이익	(-)14,343,286,574		-	
다. 매도신종증권평가이익	(-)4,030,525,447		-	
라. 별도예치금평가이익	(-)23,300,689,909		(-)18,383,758,873	
마. 외화환산이익	(-)22,580,000		-	
바.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26,789,105		(-)334,062,563	
사. 지분법이익	(-)2,232,048,922		(-)3,625,216,203	
아. 유형자산처분이익	(-)133,864,360		(-)58,481,229	
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1,388,666,042		-	
차. 대손충당금환입(기타영업수익)	(-)477,983,526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301,512,963,051		(-)115,100,145,796	
가. 예치금의 감소(증가)	44,056,481,287		(-)164,075,211,659	
나. 단기매매증권의 증가	(-)1,570,798,916,029		(-)196,274,906,742	
다. 신종증권의 증가	(-)267,686,152,636		-	
라. 기타미수금의 증가	(-)5,119,734,323		(-)33,578,362,095	

(단위 원)

과 목	제 8 (당) 기		제 7 (전) 기	
	금 액		금 액	
마. 미수수익의 증가	(-)11,193,520,291		(-)9,112,188,410	
바. 선급금의 감소(증가)	(-)22,781,964,863		1,631,919,239	
사.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699,855,747		(-)197,046,351	
아.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		26,000,000	
자. 비유동성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317,333,384		(-)1,849,069,121	
차. 고객예수금의 증가	24,879,921,776		218,028,306,354	
카. 매도유가증권의 증가	7,586,600,428		-	
타. 매도신종증권의 증가	466,000,001,024		-	
파. 미지급법인세의 증가(감소)	(-)9,728,381,193		21,295,328,447	
하. 신용대주담보금의 증가(감소)	(-)399,825,207		399,934,500	
가. 미지급금의 증가	15,535,379,438		33,341,299,200	
나. 미지급비용의 증가	6,176,758,255		13,123,984,613	
다. 수입담보금의 증가	498,000,000		193,000,000	
랴. 제세예수금의 증가	20,138,744,154		3,390,118,354	
마. 선수수익의 증가	10,000,000		-	
바. 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	2,537,352,785		688,738,230	
샤.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525,680,783		(-)88,801,085	
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배당금	-		200,000,000	
자. 퇴직금의 지급	(-)2,766,577,570		(-)2,243,189,27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62,305,990,546		(-)186,072,240,38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9,704,585,432		84,559,690,959	
가. 환매조건부채권매수의 감소	10,000,000,000		20,000,000,000	
나. 단기대여금의 감소	1,870,205,537		-	
다. 증권미수금의 감소	34,482,158,686		-	
라.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741,590,719		5,460,156,375	
마. 장기대여금의 회수	4,265,075,070		12,032,561,160	
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4,800,000,000		39,056,832,112	
사. 보증금의 감소	12,492,607,390		7,689,459,141	
아. 차량운반구의 처분	275,797,000		222,000,000	
자. 기구비품의 처분	9,373,002		18,728,000	
차. 대기금금의 감소	-		39,360,992	
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감소	767,778,028		40,593,179	

Statements of Cash Flows

제 8 기: 2006년 4월 1일 ~ 2007년 3월 31일

제 7 기: 2005년 4월 1일 ~ 2006년 3월 31일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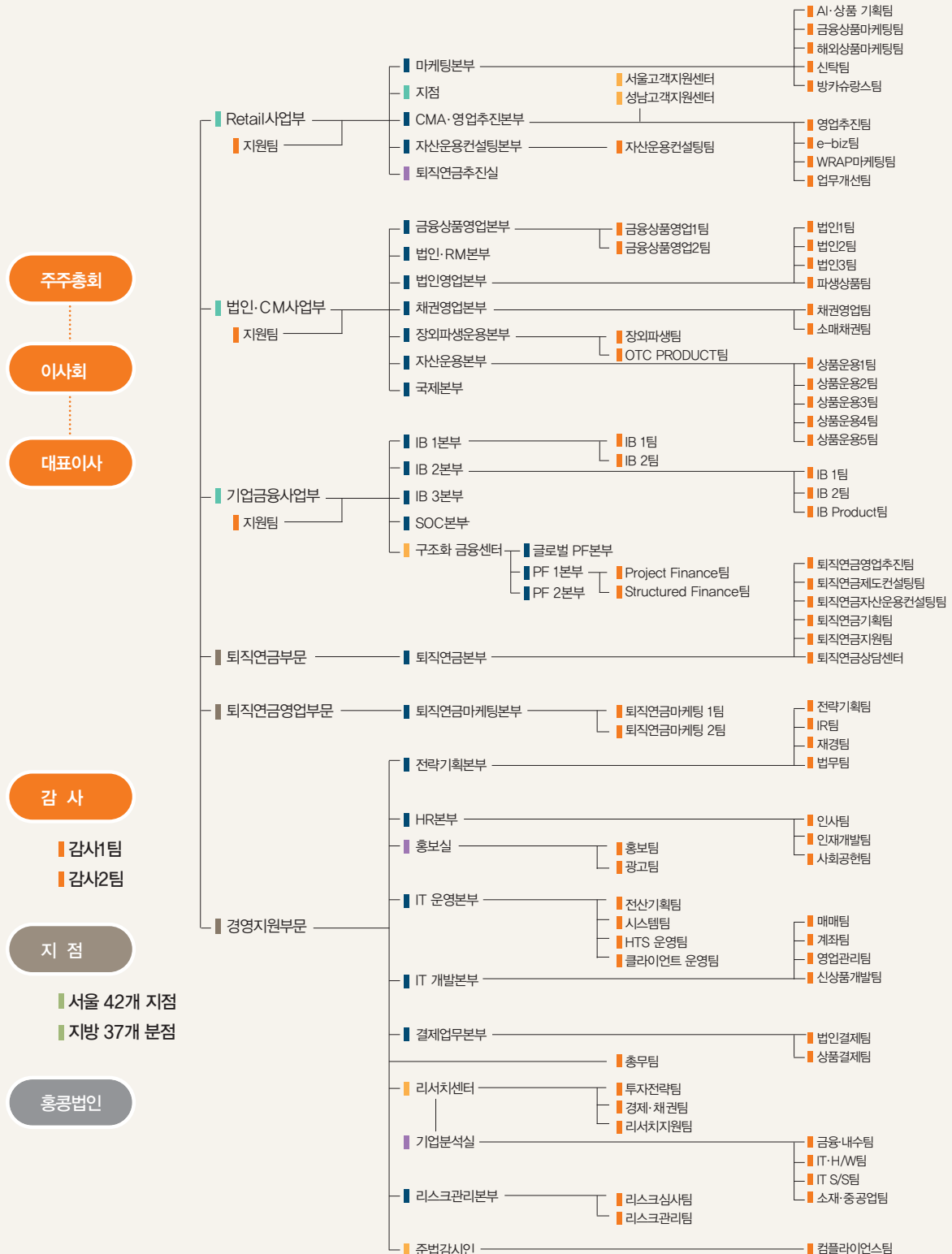
과 목	제 8(당) 기		제 7(전) 기	
	금 액		금 액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32,010,575,978		(-)270,631,931,346	
가. 콜론의 증가	(-)80,000,000,000		-	
나.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41,493,378,082		(-)40,500,000,000	
다. 신용공여금의 증가	(-)103,333,921,334		(-)88,079,718,020	
라. 환매조건부채권매수의 증가	-		(-)30,000,000,000	
마. 단기대여금의 증가	(-)1,871,755,164		(-)31,278	
바. 증권미수금의 증가	-		(-)48,187,950,267	
사.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50,530,600,940		(-)2,660,339,176	
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5,266,008,037		(-)14,027,118,945	
자. 장기성예금의 증가	(-)20,279,000,000		-	
차. 장기대여금의 증가	(-)1,415,156,500		(-)13,920,392,560	
카. 보증금의 증가	(-)18,547,149,886		(-)16,829,441,000	
타. 차량운반구의 취득	-		(-)1,119,232,713	
파. 기구비품의 취득	(-)7,390,378,236		(-)10,004,703,017	
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증가	(-)1,004,827,799		(-)2,952,714,370	
가. 무형자산의 증가	(-)878,400,000		(-)2,350,29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43,086,199,258		297,652,133,01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4,291,126,943,723		1,548,094,803,021	
가. 콜머니의 증가	-		5,000,000,000	
나. 단기차입금의 증가	20,000,000,000		-	
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증가	13,933,475,797,923		1,347,450,598,121	
라. 임대보증금의 증가	200,000,000		-	
마. 유상증자	337,451,145,800		195,644,204,9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2,548,040,744,465		(-)1,250,442,670,004	
가. 콜머니의 감소	(-)15,000,000,000		-	
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감소	(-)12,506,090,744,465		(-)1,242,546,670,004	
다. 배당금의 지급	(-)26,950,000,000		(-)7,896,000,000	
IV. 현금의 증가 (I + II + III)		75,904,051,186		88,806,253,611
V. 기초의 현금		94,674,907,137		5,868,653,526
VI. 기말의 현금		170,578,958,323		94,674,907,137

| 조직도 |

Organization Chart

2007년 5월말 현재

■ 3사업부 ■ 3부문 ■ 5센터 ■ 25본부 ■ 3실 ■ 74팀 ■ 79지점 ■ 해외법인



Global Network

미래에셋증권 서울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미래에셋빌딩 9층	www.miraeasset.com	[822] 3774-1700
Mirae Asset Hong Kong Limited	Suite 615, 6 fl, One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1 Harbour View Street, Central, Hong Kong	miraeasset.sec.hk@miraeasset.com	[852] 2295-0100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Level 15, 3 Pacific Place #1 Queens Road East, Hong Kong	marketing@miraeasset.com	[852] 2295-1500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Asia) Pte. Ltd.	3-Temasek Avenue, Unit # 23-0 1/02, Centennial Tower Singapore 039190	marketing@miraeasset.com	[65] 6511-0330
Mirae Asset Maps Investment Management Vietnam Office	Daeha Business Center, 8th Floor, 265 Kim Ma, Ba Dinh, Hanoi, Vietnam	mksarang@miraeasset.com	[844] 273-0541
Mirae Asset India Investment Management Pvt. Ltd.	Unit No. 606, Windsor Building Off. C.S.T. Road, Vidyanağari Marg, Kalina, Santacruz - (East), Mumbai 400 098	c9218@miraeasset.com	[9122] 6780-0300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UK) Ltd.	Floor 19, 40 Bank Street Canary Wharf, LONDON	heejung.chang@miraeasset.com	[4420] 7712-1656



- 미래에셋 Headquarter: Seoul
- 기존 해외자산운용사: Singapore & Hong Kong * Vietnam: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현지사무소 개설
- 현재 설립중이거나 향후 진출을 검토 중에 있는 지역

| 회사연혁 |

Corporate History

-
- 1999. 12. 02 법인 설립(자본금 500억 원)
 - 2000. 01. 08 증권업 허가
 - 2000. 01. 13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판매업무
-
- 2001. 03. 12 코스닥 50 선물 업 허가
 - 2002. 01. 18 미래에셋증권 외자유치 공로 표창(산업자원부)
 - 2003. 09. 03 방카슈랑스 업무 개시
 - 2003. 10. 22 투자일임업무(일임형 Maps Wrap)
 - 2003. 12. 17 Mirae Global Asset Management Ltd. 홍콩법인 등록 및 설립
(現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Ltd.)
-
- 2004. 12. 20 미래에셋 국내 최초 PEF 출자승인(미래에셋 파트너스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2004. 12. 22 미래에셋증권 'IPO우수 증권사' 선정 - 코스닥위원회
 - 2004. 12. 24 「미래에셋 3억 만들기 적립식펀드」 우수 금융신상품선정(금융감독원)
-
- 2005. 02. 14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 해외펀드 출시(미래에셋싱가포르자산운용 운용)
 - 2005. 08. 17 홍콩 해외사무소 설치
 - 2005. 11. 21 제1회 증권인주간 기념 공로 패 수상 - 증권업협회
 - 2005. 12. 09 신탁업, 퇴직연금사업 인가
 - 2005. 12. 29 2005년 IPO 우수 증권사 선정 - 증권선물거래소
-
- 2006. 01. 02 매경증권인상(대상) - 매일경제
 - 2006. 01. 04 다산 금융상(금상) - 한국경제
 - 2006. 02. 15 유기증권시장 상장
 - 2006. 03. 10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인가
 - 2006. 03. 22 국내 최초 무료 '펜션스쿨' 운영
 - 2006. 07. 14 퇴직연금상담센터 오픈
 - 2006. 10. 16 미래에셋 자산관리 CMA 출시
 - 2006. 12. 12 제2회 한국CEO그랑프리 '증권부문' 수상 - 한국CEO연구포럼
 - 2006. 12. 19 제4회 대한민국 가장 신뢰 받는 기업상 수상 - 한국경영인협회
-
- 2007. 01. 11 Mirae Asset Hong Kong Limited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설립 및 영업인가
 - 2007. 01. 29 해외 기업설명회 개최
 - 2007. 03. 14 유·무상증자(유상: 6,750,000주/발행가액 50,000원, 무상: 증자비율 10%, 증자후 자본금 1,855억원)
 - 2007. 04. 20 제4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IPO 부문상-머니투데이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